





2009  
4

Vol. 201 April

우리문화

#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획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개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위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년 10월 10일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 2009.4 우리문화

통권 201호 April



표지 | 포천문화원 반월문화제

등록번호 서울라 12184 | 발행 한국문화연합회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ccf.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편집인 최중수 | 편집위원 곽효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종(광주 서구문화원장),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춘심(성남문화원장) | 편집팀장 문선희 | 편집 디자인 디자인 인크 02)332-7924 | 인쇄 태양 씨엔피 02)2268-2111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가 3,000원

02	칼럼
04	특별기고
08	연재 _ 문화원을 듣는다
12	사무국장 연수
14	문화원 이야기
16	성남문화원
16	문경문화원
18	순천문화원
22	특집) 봄을 맞이하다
27	사계절의 변화를 담은 술_가항주와 그 문화
27	무속의례에서 쓰이는 꽃_신화
31	지역의 곡우를 살피다
31	봄의 차_우작이 나오는 때 4월
36	문화원 탐방
40	포천문화원 반월문화제
44	기획
44	예절_공통례 시리즈2
48	연합회 레이더
48	문화원 이모저모
55	우리문화 소식
56	신간소개
59	원장동정

# 새로운 향토사 연구 및 활용 방안



강진갑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 문화원의 '향토사 대중화' 사업

지금 향토사 연구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있다. 향토사를 소재로 하는 문화콘텐츠 창작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데, 향토사 연구자 층은 노령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문화원에서 '향토사 대중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향토사 연구 저변을 확산시켜 연구자와 향토사 애호가 층을 두텁게 하고, 지금보다 근현대 향토사에 대한 관심을 높여 연구 및 활용 대상을 다양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향토사 주제의 문화콘텐츠화 현상에도 적극 대응하여 문화원에서도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글은 향토사 대중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의 일단을 제시하기 위해 집필된 글이다.

## 청소년들에게 향토의 역사와 부모의 생애를 연결시켜 조사하게 하자

1990년대 이후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역사학자들이 지역사 연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사 연구는 매우 활발해 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거주하면서 내 고장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궁금증에서 연구를 시작하여 향토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는 향토사 연구층은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연구자는 노령화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향토사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장차 향토사를 연구할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문화원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청소년 마을 해설사 양성, 집에 있는 사진을 모아 사진첩을 제작하는 사업이 그 예이다. 집에 있는 사진을 모아 앨범을 제작할 때, 청소년들로 하여금 부모의 생애를 구술받아 사진과 함께 부모의 역사를 정리하게 한다면,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삶이 지역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가까운데서부터 향토의 역사를 이해하고 공부하게 되니 흥미도 더하겠지만 부모를 더욱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 사랑이 넘치는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 근현대 향토사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향토사 교육을 체험교육과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기획되고 있다. 강의와 통상적인 답사 중심으로 편성된 프로그램이 더러 있어 청소년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성인 대상의 교육도 그러하지만 특히 청소년을 피교육자로 하는 교육은 시청각 자료와 체험교육이 병행되어야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도자기를 강의하면서 도자기 만들어 보고, 답사를 하면 답사 과정을 사진으로 찍게 하고 '사진으로 엮는 내 고장 역사이야기'를 제작하게 한다면 청소년들이 흥미 있어 할 것이다.

2009년 태백문화원이 향토사 답사를 오리엔티어링(orienteeing)이라는 스포츠와 연계한 '노다지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오리엔티어링이란 자연 속에서 지도와 나침반을 이용하여 일정한 중간 지점을 통과하여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는 것을 겨루는 오락성이 강한 스포츠 경기이다. 태백은 일제 강점기 이후 광산촌으로 발전한 곳이다. 태백 광산문화와 관련된 곳을 중간지점으로 선정하여 이것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광산 역사를 이해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근현대 지역사를 주제로 하고 이를 놀이와 결합하였다는데 그 의의의 높이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향토사 이야기를 문화콘텐츠로 만들기

지금 한국과 세계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것은 문화산업이다. 역사를 소재로 하는 출판물과 영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들 매출액이 상당하다. 문화산업은 이야기 산업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사와 문화유산, 지역의 설화 등을 이야기로 꾸미는 산업이다. 문화산업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다. 상상력을 키우는 일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문화원에서 향토사 대중화사업을 하면서 향토사를 소재로 한 연극과 뮤지컬, UCC와 영화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소년들은 지역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향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은 장차 한국 문화산업을 이끌어 갈 역군을 양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연물과 영상물을 만들때 조심해야 할 것

이 있다. 연극의 경우 청소년들이 연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도자들이 대사와 연기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하고 내용을 만들어주려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필자가 청소년 연극을 만드는 과정을 참여한 경험으로 비추어볼때 이것은 절대적인 금기사항이다. 그렇게 하면 단시간에 불만한 연극 한 편을 만들어 관람객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키우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도자는 연극에 대한 기본을 지도하고 상황 설정만 해주고, 구체적인 대사나 연기는 청소년들 스스로 만들어 가게 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기본기만 익히면 스스로 상황과 대사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 마음 속 깊이 이해한 연기가 가능하고, 대사를 잊었을 때에도 즉흥적인 연기가 가능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창의력이 길러진다는 것이다.

### 향토사 소재 창작물에서 픽션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나

역사를 주제로 하는 창작물의 경우 작가의 상상력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다. 오래 전에 방영된 드라마 '허준'에서 유의태가 허준의 스승으로 설정되었지만 유의태는 허준의 후세 인물이다. 유의태를 허준의 스승으로 그린 것은 극의 재미를 위해서 였다. 영화 '미인도'에서는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을 여성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해 문화재 전문가들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한 미술사학자는 천박하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면 영화 '미인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009년 3월 20일 태백에서 개최된 전국문화원 사무국장 연수 향토사 분과 토론회에서도 참가자들 사이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진다. 공연작품은 픽션이므로, 향토사를 소재로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작가의 상상력은 충분히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문화원에서 하는 공연물은 대부분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므로 역사적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교육적 견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까지 작가의 상상력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전자는 소수였고, 후자가 다수의견이었다. 필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물은 교육적 성격이 강하므로 후자의 입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연극이 아닐 경우, 문화원에서 창작을 한다하더라도 작가적 상상력은 충분히 허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2008년 과천하마당축제 때 과천문화원은 관악산 일대에서 전해오는 '관악산 왕후묘' 설화를 주제로 '사랑으로 돌아오다'라는 창작극을 제작하여 개막작품으로 공연하였다. 내용은 왕의 횡포로 억울하게 죽은 젊은 남녀의 넋을 위로해 주는 내용이었다. 이 작품은 외국의 우수한 예술 창작품과 어깨를 겨루는 무대에 개막작으로 올려질만큼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문화원도 이같은 예술작품을 창작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본격적인 예술작품의

경우 작품의 완성도가 중요하기에, 향토사를 소재로 한 창작물일지라도 작가의 상상력은 충분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중국에서는 인상시리즈 열풍이 불고 있다. 인상시리즈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연출한 장예모가 지역의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뮤지컬이다. 장예모는 공연작품을 답답한 실내 공연장에서 야외로 끌어냈다. 강을 실제 무대로 삼아 공연하고 있다. 배우들은 물 위에서 연기를 한다. 그리고 '인상유삼제'라는 작품에서는 관중석에서 10km 떨어진 산을 무대 배경으로 삼았다. 야간에 무선으로 조명을 조정하여 산과 물, 빛과 색이 어우러지는 한 편의 대형 뮤지컬이 공연되고 있다. 1년에 100만명 이상이 찾는 인상시리즈는 한국인들의 중국 게임 관광 코스에도 들어갈 정도로 한국 사람들도 즐겨찾는 관광상품이다. 지역 주민을 훈련시켜 배우로 등용하였기에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크게 늘어났다. 주민들은 스스로가 배우라는데 큰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인상시리즈는 지역의 이야기기 상상력과 결합될 때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도 증대시켜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토사를 콘텐츠로 만들고 있는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 가칭 '향토사 대학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새로운 향토사 연구자를 양성하자

향토사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은 연구자를 양성하는 일이다. 모든 것이 연구자의 연구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가 없으면 문화콘텐츠도 없다. 향토사 연구자층 확대를 위한 1차 대상은 지역의 교사와 문화유산 해설사들이다. 이들은 역사와 지역 문화에 대해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향토사연구자로 양성할 수 있다. 이들을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해 향토사 연구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가칭 '향토사 대학원'을 개설해 현장 답사와 문헌을 통해 향토사를 조사, 연구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여 전문적인 향토사연구자로 양성해보자. 이 프로그램에는 기존의 향토사학자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 수준 유지와 수강생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 도 단위로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방학 중에 실시하는 교사 직무연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교사들을 향토사연구자로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향토사 연구 기반을 확산하고 이를 활용하는 일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일은 고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문학을 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다. 향토사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길러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초를 확립하는 일이 되고 있다. 이제 향토사 연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역의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모두 참여하여 향토사 연구를 활성화시켜 나아갈 때이다.

## 특별기고

# — 지역문화를 키워야 — 나라문화가 산다.

—  
문화의달 행사  
순회개최와  
지방문화원의  
역할



청주 줄다리기



## 보름달 얼굴, 문화의 '달' 로 뜨다.

즐겁고 보람찼던 문화원 8년 생활을 정리해 가던 내게, 뜻밖에도 또 다른 봉사의 기회가 주어졌다.

2008문화의달추진위원회를 구성하던 날 위원장선출을 놓고 뜻을 달리하는 위원들이 각축을 벌이다가 막바지에 가서 '문화원장 추대론'으로 기운 것이다.

나는 처음에 고사(固辭)했으나 누군가가 던진 '문화의 달이니까 얼굴이 보름달 같이 생긴 분이 말아야하지 않겠어요?' 하는 그럴싸한 조크 한마디에 어떤 피할 수 없는 인연 같은 게 느껴져 주저앉고 말았다. 허진 지역에서 오랫동안 구축해온 문화원 이미지나 위상제고 차원에서 사양할 자리가 아닌 듯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가 다가와 '지역순회 여섯 해만에 문화원장 출신이 많았군요. 잘 아우르며 화합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대 섞인 주문을 해주었지만 얼굴이 등글다고 마음까지 등글겠는가. 외곬성격인 나로서 벅찬 자리가 아닐 수 없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인복은 좀 타고났나 보았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어려운 고비를 맞을 때마다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났다. 문화원 가족들의 성원도 큰 힘이 되어주었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릴 때는 토론으로 풀었다. 급조된 한시적 민간조직이라 손발이 잘 맞지 않을 때도 있었으나 열정은 철철 넘쳐났다. 지자체와 언론계에서 무척 호의적이었다. 까마득하게만 보이던 동심원(同心圓) 그리기에 탄력이 붙어갔다.

## 주제어 '소통'에 담긴 충북문화 정체성

문화의 달/날 행사가 시작된 것은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공포되면서이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의 노고를 기리는 기념식을 중심으로 서울에서만 치러지던 관주도형 소규모 행사였으나 1999년 민간추진으로 전환되면서 시민 참여형 복합문화축제로 발돋움했다.

이 행사가 서울을 벗어나 전국주요도시 순회로 바뀐 것은 행사가 시작된 지 31년만인 2003년의 일이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역문화 자생력을 복돋기 위해서이고 대구, 광주, 전주, 제주, 부산을 거쳐 지난 해 충청북도 청주에 유치되었으며 금년 10월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나는 청주행사의 주제어(主題語)로 서슴없이 '소통(疏通)'을 제안했다. 추진위원들의 전폭동의가 따랐고 도종환 시인에 의해 '소통-문화의 길 열다'로 생명력을 부여받았다.

충북문화 정체성과 비전이 내포된 상징성을 가진 '소통'을 고른 논리적 배경으로 2006년 1월 '청주사랑'지에 발표했던 졸문의 앞부분을 인용해 본다.

대한민국 국토 한가운데를 뜻하는 '배꼽' 자리가 어디냐를 놓고 충주·포천·양구 등 3개 시·군 간에 기(氣) 싸움이 벌어진 일이 있다. 어떤 고을에서는 배꼽마을까지 만들고 테마공원까지 조성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정체성 확보 논쟁 같다.

이 배꼽논쟁에 한 술 더 떠서 한반도를 인체에 견주어 '위(脛)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냐' 한다면 단연코 '충청북도'이다. 땅 모양도, 위치도 흡사하고 역사·문화적으로도 그렇다. 왜냐? 이득한 옛날 충북은 삼국의 접점지역에 위치하여 고구려·백제·신라의 각축장이 되었을 때부터 세 나라의 문화적 요소들이 흘러들어와 공존하면서 융합·조화·소통의 중원문



화(中原文化)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동서·남북문화 교류의 요충지로서 여러 이질문화를 절충·조화시키는 포용력과 관용성을 나타내왔다. 이러한 정체성은 청풍명월의 풍월(風月)로 일컬어지는 '멋과 풍류를 즐기는 양반·선비적 기질'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이를 알기 쉽게 비유한다면 사람의 신체부위 중 위(胃) 즉 밥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즉 '나와 다른 체계를 끊임없이 통합해서 새롭게 창조해 가는 문화'가 충북과 청주문화의 동인(動因)이라는 얘기다. 지난 세기 산업시대를 눈과 귀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21세기는 나와 다른 문화를 내 세포 안에 끌어들이며 내 조직으로 만드는 '위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주장도 있고 보면, 충청북도가 이제 한국 문화의 중심축에 설 수 있다는 희망찬 전망도 할 수 있다.



### 외국관광객 유치의 파급효과

문화의달 행사는 지역문화의 독창성 계발을 생명으로 한다. 즉 청주만이 가진 고유한 문화브랜드를 창출해 내야하는데 직지(直指)에 관한 축제는 예년과 같이 9월에 먼저 열게 되어있어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틀을 짰다.

첫째 전통문화 발굴·전승과 시민화합 한마당으로 청주줄다리기 민속행사, 둘째 지역문화브랜드의 새 지평을 열 충북 근·현대작고예술인특별전, 셋째 지역예술인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상징적 행사로 아트페스티벌, 그리고 시민참여형 문화예술동아리축제, 광장문화제, 소통의 문화체험 등 7대 행사로 확정되었다. 돈 많이 드는 인기인 초청공연행사보다 시민과 지역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말았던 기념식의 참석자 동원이 마지막 단계에서 난제로 떠올랐다. 서울의 내로라하는 원로들은 물론 경향각지의 중진들이 다수 참여하는 국가공식행사인 문화의날 기념식(10월 18일) 참석자 확보 문제였다.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좌석 1천5백석에 3배수나 되는 초대장을 발송하고 나서 참가예상자를 체크해보니 절반도 차지 않을 듯 했다.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시당국의 협조를 구해 동장회의를 소집했으



나 동원은 할 수 없다고 머리를 흔들며였다. 이 마지막 고비에서 한류스타 배용준이 훈장 서훈자에 포함되어 참석한다는 빅뉴스가 터져 나왔다.

윤사마의 위력은 대단했다. 표창자 명단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정보를 미리 입수한 여행사들이 발 빠르게 일본 윤사마 팬들을 확보하여 전세기까지 띄운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단하나 있는 수준급 호텔객실이 동이나 버렸다. 어제까지 자리 채우기에 안간힘을 쓰던 준비팀은 거꾸로 오겠다는 사람 말리느라 전전긍긍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여기에 앙드레 김, 송승환, 장나라까지 인기몰이를 하여 행사의 얼굴격인 기념식장이 초만원 을 이루었다. 배용준은 헬기를 타고 와 두어 시간 머물고 돌아갔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팬들이 장사진을 이루며 전경들이 길을 터 주어야만 했다. 5백여 일본 관광객들은 윤사마 행사를 잠시 보기위해 2박3일간을 할애했다. 문화의달 행사가 외국 관광객 유치의 파급효과를 몰고 온 셈이다.

### 문화의달 행사 청주유치가 남긴 것

2008 문화의달 청주행사는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몇 가지 괄목할만한 가시적 성과를 남겼다.

첫째 일제 때 중단되었던 '청주줄다리기'를 80년만에 재현하여 연례행사로 부활시켰으며, 둘째 충북 근·현대 작곡예술인 특별전이 충북문화관 건립추진의 결실을 맺었고, 셋째 문화의달을 기해 제정·공표된 '충청북도문화헌장'이 문화선진도 청사진을 앞당겨 올해 문화재단 설립과 충북예술단 창단을 불러왔으며, 넷째 예총·민예총 등 성격을 달리하는 예술단체들이 협력의 틀을 구축했다는 점 등이다.

또한 이번 행사의 보이지 않는 더 큰 성과로 지역민들에게 문화의 의미를 확산시키고 지역문화를 키워야 나라(국가)문화가 산다는 당위성을 일깨워 주었다는 사실을 듣고 싶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값진 의미는 '소통'을 내세워 '지역과 세대와 계층의 벽을 허물어내는 국민화합'을 이 시대 우리사회의 화두로 던졌다는 점이다.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민들은 '대한민국 문화소통의 중심이 바로 충청북도요, 청주'임을 자랑스럽게 공감했을 것으로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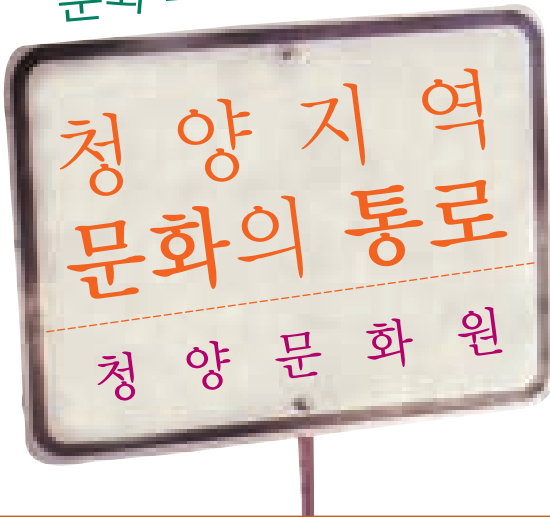
한 가지 털어 놓을 일은 행사추진 주관자인 본인이 그 석상에서 문화훈장 화관장 수훈의 영광을 누린 일이다. 더욱이 배용준과 나란히 받는 바람에 연예가중계에 까지 얼굴을 내밀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그동안 함께 땀 흘렸던 청주문화원 나아가 충북문화가족들의 덕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연합회에서 한 분이라도 수상자를 더 늘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며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고 고마운 마음 금할 길 없었다. 앞으로 지역문화의 구심점인 문화원이 매년 열리는 문화의달 유치에 능동적으로 나서고 행사추진에도 중추적 역할을 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008년 체험담을 두서없이 털어놓아 보았다.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문화의달 행사가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진정한 문화소통의 장으로 더욱 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



**박영수** 청주문화원 고문  
2008문화의달 추진위원장

## 문화원을 듣는다



- 청양문화원에는  
어떻게 하면 곤궁한 생활과  
기계적 타산과 현실적 물질에 길들여 있는  
메마른 주민들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항시 고려하여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음악회



미술전시회

## 역사와 지리 (칠갑산)

우리 청양은 충남 중부내륙의 산간지대로 삼한시대에는 마한지역의 구로국에 속해 있었으며 백제시대에는 고량부리현이었는데 통일신라시대에 청정현 또는 청무현으로 고쳐지고 고려시대에 청양현으로 바뀌고 1895년에 청양군이 되었으며 1914년도에 정산군을 통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칠갑산은 충남의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으로 차령산맥의 서남방향으로 힘차게 뻗어 내려오다가 금강북쪽을 감싸 안으며 서남쪽으로 치닫는 금북정맥(錦北正脈)의 곁가지에서 잠시 머뭇거리며 이 곳에 칠갑산(七甲山, 561m)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칠갑산을 중심으로 산동(山東)과 산서(山西)의 1개 읍 9개면이 웅기종기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고장이다.

우리 청양을 충남 알프스라니 명당이 7곳이 있어 칠갑산이라 이름 지었다고도 하고 7인의 큰 인물이 날 곳이어서 칠갑산이라 하였다는 통설도 있으나 근래에 크게 기대를 모았던 충남 지역 정중앙인 청양과 금강변에 충청남도 도청 이전 지역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등의 부풀린 기대가 있었으나 이젠 물거품이 되었고, 뫼니뫼니해도 콩밭 매는 아낙네가 등장하는 칠갑산이란 유행가가 히트를 치면서 유명해진 것도 사실이다.

## 청양은 충절의 고장

또한 우리 청양은 충절의 고장이요 인물을 많이 배출하였을 뿐 아니라 따라

서 역사가 유장悠長 고장이다. 특히 백제 패망기의 항전 흔적과 3.1독립만세 항일 유적이 많이 있는 고장이다. 백제고토 회복의 흔적으로는 정산면 백곡리 두륜윤성(豆陵尹城)과 두율성(豆率城), 그리고 청양읍의 우산성(牛山城)이 역사를 증거하고 있으며 인근 예산군의 임존성(任存城)과 홍성군의 주류성(周留城)등이 있는데 이 모두가 패망한 백제 부흥을 위하여 부여사비성(泗水城)탈환의 연대적 전 초기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역사는 증언한다. 이러한 흔적들은 무려 13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흔적들이다. 또한 일제에 항거한 3.1독립만세 항일운동이 어느 지방보다 뒤지지 않게 정산과 운곡등지에서 거세게 일어났던 곳이며 항일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면암 최익현이 이 지역에서 의병활동을 벌였고 그를 기념하기 위하여 『모덕사』를 건립하고 춘추대의제를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

## 칠갑산 장곡사

칠갑산 장곡사는 국보와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귀한 사찰이다. 신라문성왕 12년(850년) 보조법사에 의하여 창건되었고 위쪽에 상대웅전 아래쪽에 하대웅전이 방향을 달리하여 세워져 있다. 주변의 거목들에서 고찰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며 국보 2점과 보물 4점이 있다. 청양에는 장곡사에 있는 것을 포함하여 모두 국보 2점과 보물 8점 그리고 중요민속자료 1점의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문화재로 유형문화재 4점 무형문화재 3점과 기념물 4점 문화재자료 8점이



장승문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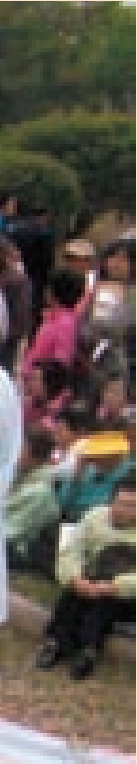
있는 화려하지 않으나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청양읍 중심축에 모세혈관 같이 흐르는 지천 물은 우리 청양 주민들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물길이다. 칠갑산에서 발원하여 금강에 합류하는 물줄기는 어을향천(은천동), 작천(까치내) 지천을 거쳐 금강으로 흐르고 있다. 그 중간에 작천과 지천의 한토막이 절묘한 증암절벽 밑으로 흐르면서 기묘한 곡류를 연출한다하여 이 경치를 예로부터 지천구곡이라고 불려온다.

그런데 지금 청양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느 지역이 살기 좋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일 먼저 교통문제가 편리해야 하고 두 번째가 교육환경이 좋아야 할 것이며 세 번째가 문화적 혜택의 편의성 등을 들 수 있다고 볼 때 교통의 문제는 지역적으로 충청남도의 정중앙에 위치한 지역으로 예부터 교통의 요충지라 불려오긴 했으나 지금은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다. 부여, 보령, 홍성, 예산, 공주 모두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아는 군청소재의 이름인데 그 지역들 가운데에 위치한 청양에서 짧게는 60리에서 100리에 상거한 도로가 아직도 4차선 도로가 한곳도 없는 실정인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적으로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야 하는 곳이지만 현실은 교통이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교통이 취약하니 교육환경이나 문화적 혜택이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문화원에서는 이렇게 역사는 길고 유현한 곳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궁벽한 고장에서 문화적 혜택이 적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문화의 혜택을 줄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문화원이 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

▶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매년 4월 벚꽃 피는 시기를 감안하여 20일을 전후해서 개최하고 있으며 마을 장승제를 축제로 까지 확대시킨 것은 칠갑산록에 자리 잡아 살아가고 있는 산촌마



을에서 해마다 음력 대보름이면 마을장승제를 지내고 있는 대치면 대치리마을 등 7개 부락에 이르고 있고 더러는 동화제를 지내는 부락이 있음에 착안하여 우리 조상들이 일 년간 부락과 가정의 안녕을 위하여 정성을 기우리는데 경외스런 마음을 문화적 차원의 축제로 발전시켜 군 단위 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관람객은 평균적으로 1만여 명에 달하고
- 장승대제 시 소지를 태우며 소원을 비는 장면은 장관을 이룬다.
- 마을 장승시연 경연을 통하여 단합과 공동안녕을 기원하는 풍습을 고양 시키며
- 학생들의 그리기대회 허수아비창작공모전, 나만의 우표만들기, 가훈 써주기, 소달구지타기체험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고향사랑의 애향심을 고취 시키고 있다
- 특히 지난해에는 공자 말씀의 돌장승을 세웠는데 ‘禮가 아니면 보지 말고 禮가 아니면 듣지 말고 禮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는 경구가 섰다.

▶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넓히고자 18개 문화씨클을 운영하여 “문화회원 유적지순례, 향토사연구회 학술조사, 무용, 사물놀이, 서예, 민요, 대금강습회, 청소년음악회, 사진, 미술, 서예, 난, 공예품 전시회, 시낭송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문화학교, 청소년 역사체험순례, 충의선열 추모 한글작품 공모전, 청소년 음악회, 문화코너(음악 및 영화감상실)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취미생활 및 정서교육에 힘쓰고 있다.

▶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전통 민속놀이 읍·면대항 경기로”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장기, 바둑대회를 개최하여 읍·면민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있으며

▶ 발간사업으로는 시, 수필, 고장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칠갑문화”와 우리고장의 민속문화를 발굴, 조사하여 “향토사료집” 2종 각각 1000부씩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 청양문화원 부설 향토사료관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가 담긴 민속자료, 문헌 등 600여점을 전시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 출향문화예술인과 다문화가족을 초청하여 “내고장 문화알리기” 행사를 개최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문화원 위상 및 이미지 제고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우리의 생각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는 어떤 건물을 세운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런 하드웨어적 성과에 의하여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흐르는 감성과 인식과 예절에 의하여 성장하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나는 언젠가 우량종의 문화씨앗을 뿌리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청양문화원에는 어떻게 하면 끈공한 생활과 기계적 타산과 현실적 물질에 길들여 있는 메마른 주민들의 마음을 부드럽고 인정스럽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항상 고려하여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눈앞에 금방 나타나지 않아도 두고두고 마을회관 같은 데서 촌놈들에게 진심어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볼 생각이다.



정제권 청양문화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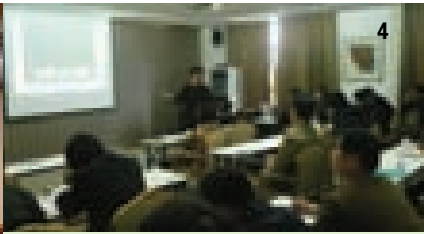
연합회 소식

제17차 전국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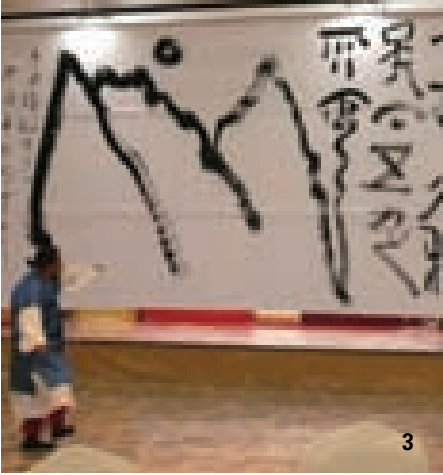
2



4



5



3

1. 개회식
2. 공연
3. 대북공연
4. 분임토론
5. 수료식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강원도 태백 오뚜 리조트에서 제 17차 전국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연수를 가졌다.

식전행사로 해설이 있는 강원도아리랑 공연이 있었으며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에서 최중수 회장은 전국 224개 지방문화원은 각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많은 성과를 쌓아왔으며, 한편으로는 전국 공통의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말하며 문화원의 핵심인 사무국장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연합회는 사무국장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각종 정보제공, 교육 등을 통하여 지방문화원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격려하며 여타 문화단체와의 경쟁 속에서 선배들이 확보해온 우위를 계속 지켜나가야만 한다는 점을 자각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이재호 과장이 대독한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격려사와 박종기 태백시장의 축사, 이대근 강원도지회장의 환영사로 개회식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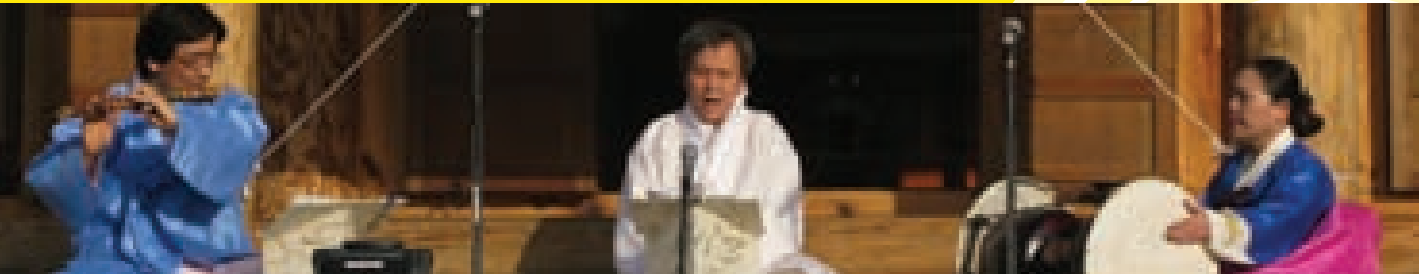
특별초청 및 사례발표로 이재호 강원도 문화예술과장의 강원도 문화예술행정시책과 심영보 울산 남구 사무국장의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 및 육성 조례안 제정, 홍인수 구미문화원 사무국장의 젊은 우리가 찾는 옛 이야기, 현대수 공주문화원 사무국장의 실버문화공연단 '논두렁밭두렁' 이 있었다. 이어 구문모 한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의 '향토문화자원과 콘텐츠 활용사례' 에 관한 특강이 있었다. 20일과 21일에 걸쳐 있었던 분임토론은 5개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실버문화프로그램1 공연형(윤성진 공연예술기획 이일공대표), 실버문화프로그램2 제작체험형(곽효환 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실버문화프로그램3 특색 및 복합형(류재현 아이디어 상상공장 대표 문화기획가), 향토사 대중화사업(강진갑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문화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신동호 리서치 21대표)로 이루어져 이틀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괄호 안은 진행 강사) 이를 토대로 마지막 날에는 종합발표가 있었다.

이색적으로 20일 오후 진행됐던 웃음요기는 최은정 웃음요기전문가의 진행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사무국장협의회 총회에서는 오랜 겨울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백시민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자는 결의에 따라 사무국장협의회장으로 새로이 선출된 박종오 연제문화원 사무국장은 태백문화원을 제외한 전국 223개 문화원 사무국장들로부터 총 223만원의 성금을 모아 태백시장에게 전달했다.



문화원  
이야기  
성남문화원

두 번째 둔촌 이야기 자리  
'봄, 둥근 날 밤에'





■ **성남문화원 (원장 한춘섭)** 은 지난 3월 11일, 음력 보름을 기해 다가오는 봄, 등근 날 밤에 두 번째 <둔촌 이야기 자리>를 둔촌 사당 '추모재' 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미래형 첨단도시로 도약하는 성남시에서 우리 고장의 큰 어른으로 모셔야 될 고려 말 대학자 둔촌 이 집(李集, 1327~1387) 선생의 추모 문화행사를 상설화하며, 성남시 향토유적 제2호에서 '경기도 기념물 제219호' 로 승격·지정됨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치러졌다.

작년 10월, 깊어가는 가을, 등근 날 밤에 첫 번째 이야기 자리를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풍성한 문화잔치로 개최한 바 있는 성남문화원은 그 두 번째 행사로, 광주이씨 대종회 이해재 도유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종원 문화유사의 '둔촌 인물 강좌', 다스름 정가악보존회의 둔촌 선생 작시 '정훈(庭訓)' 시조창과 성남청소년교향악단 박용준 상임지휘자의 기타 연주 '밤과 꿈' 등이 펼쳐졌으며, 김인옥 시인의 둔촌 선생 추모시 '큰 기침 소리' (한춘섭 작)와 애도시 '이 호연을 꼭하다' (포은 정몽주 작) 낭독이 이어졌다.

이날, '역사의 흔적을 찾는 사람들' 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현영조 서울환경계획연구소장은 "역사의 흔적을 지우려는 사람들이 흔한 현실에서 '역사의 흔적을 찾으려는 사람들' 이 많은 현실로 시동을 건 '둔촌연구회' 를 나아가 '둔촌학회' 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성남문화원 부설 둔촌연구회는, 둔촌 선생의 고매한 삶의 인품을 추앙하고 둔촌 선생의 정신적 교훈을 향토사 위인의 참된 삶을 귀감으로 하여 현대사회에 계승하기 위한 문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되어, <둔촌 청소년 문학상> 제정 및 <한시·시조시 백일장>, <둔촌 이야기 자리>를 매년 개최하는 등 둔촌 문화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오고 있다.

문화원 이야기  
문경문화원

# 시민 평생교육의 전당 '문경문화학교' 2009년 개강식

올해에는 문경시로부터 문화원이 꼭 해야 할 전통문화예술 교육을 특화시키기 위해 사물놀이, 한국무용, 제례, 한시를 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 문경문화원 (원장 채대진)은

4월 3일 10시 문경문화원 2층 대강당에서 『Learning 문경문화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 평생교육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한 '문경문화학교'의 2009년도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는 신현국 시장을 비롯하여 채대진 문화원장, 남효근 조령한사회장, 고영조, 정현수 부원장 등 기관단체장과 고재하(제례), 이주섭(한시) 강사 등 강사, 수강생 1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개강식 후 계명대 홍원식 교수의 '유교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의 시민인문강좌 겸 개강 특강을 가졌다.

지난해 문경문화원 문화학교는 18여개 강좌에 400여명의 시민들이 수강하여 '나를 새롭게, 지역을 새롭게'라는 슬로건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부문에서 취미증진과 자기계발을 연마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대폭 늘어난 22개 강좌에 500여명의 시민들이 수강 신청하였다.

문경문화학교는 유료강좌로 월 1만원에서 2만5천원까지 수강생들이 회비를 부담하는 강좌로써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열띤 시민들의 참여와 열정적인 배움의 전당으로 자리하고 있다.





채대진 문화원장은 '문화원은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수준별 강의운영, 시민의 편익에 맞는 시간 운영,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적극적 참여 유도 운영을 중요한 원칙으로 정하고 수강생들을 모집하였다.' 고 말하고, '자기계발을 위해 배우고자 하는 문경시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평생 배우는 문경, 평생 공부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생생히 나타나고 있다.' 면서 많은 시민들이 등록하여 성황리에 개강하는 것을 크게 기뻐했다.

채대진 원장은 '특히, 올해에는 문경시로부터 문화원이 꼭 해야 할 전통문화예술 교육을 특화시키기 위해 사물놀이, 한국무용, 제례, 한시를 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며, '이는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신현국 시장님의 큰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며, 이점에 대하여 신현국 시장님과 문화예술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 말했다.

올해는 이날 개강식을 갖고, 3개월 단위 12주씩 3개 학기제 (봄,가을,겨울)로 처음 운영하게 되었으며, 수강등록은 학기별로 받는다. 학기일정과 개설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문의는 문경문화원 555-2571.

문화원 이야기  
순천문화원

# 내시(內侍) 마을을 찾아서

순천시 별량면 원창리(元倉里)는 조선 시대 낙안군 초상명(草上面) 지역이다. 1914년에 조선총독부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초상면의 대은리(大隱里) 척동리(尺洞里) 석애리(石涯里) 신석리(新石里) 서동리(書洞里)와 별량면 회룡리(回龍里) 각 일부를 통폐합하여 순천군 동초면 원창리로 통칭하였고 1929년에 동초면이 없어지면서 별량면 원창리가 되었다.

그 가운데 척동과 그 너머 대은동이 조선 시대 내시가 살던 마을이다. 이 지방 사람들은 '고자네 마을'이라고 부른다. 필자는 1960년대부터 이 마을의 존재를 알았다.

고자들만 사는 마을이다 있을까?

고자들은 장가를 갈까?

가정을 어떻게 꾸려 갈까?

어떤 여자가 고자에게 시집을 갈까?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렀다. 세월이 흐를수록 고자네 마을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었다. 양자를 들이는데 반드시 고자를 찾아들이고 고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쫓아낸다는 것이다. 그런데 낙안에서 삼일독립만세를 불렀을 때 서울과 연락을 하던 마을이 이 고자네 마을이었다는 말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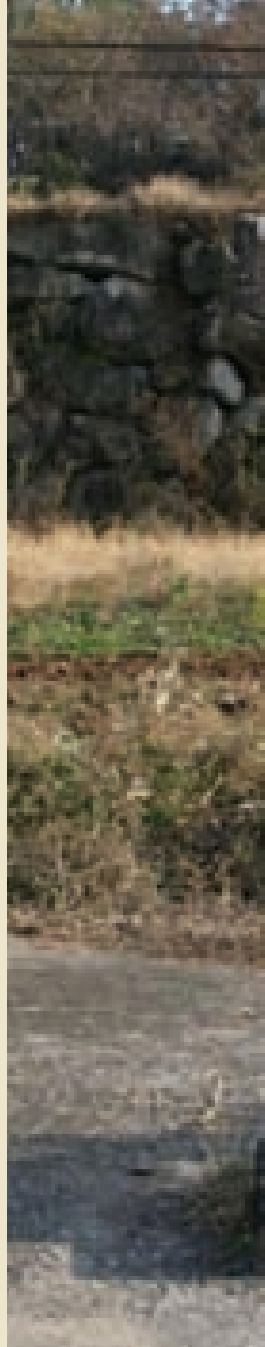
한 번 찾아가보고 싶었다. 지금도 고자들이 살고 있을까? 그러나 알음도 없고 누가 안내해 주는 이가 없어서 찾아가지 못했다.

기회가 왔었다. 동사연(東社硯) 산하 한얼답사회장을 맡고 회원과 함께 순천 관내 마을을 답사하면서 고자네 마을을 답사했다. 이 집이 고자네 집이리니 생각하고 찾아들었다. 두 늙은 내외가 웬 놈들이들이 탁치는가하고 의아스런 눈길을 보냈다.

“어느 집이 고자네 집이요?”

하고 물어볼 수도 없어서 회원들과 집이 좋아서 왔노라고 하여 이것저것 훑어보았으나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하고 나왔다.

2006년 10월에 동사연에서 '순천만 스토리텔링'의 자료를 수집한





다며 동참을 요청해서 동참하기로 했다. 동천과 서천 연안 마을과 이사천 연안과 순천만 해안 마을을 찾아가 마을이야기를 녹화·녹음을 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 해설사가 이야기 할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드는 일이다.

해룡면 농주리 유룡(有龍) 마을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채록되었다.

별량면 척동 마을에서 김부자(김재창) 집에 딸을 시집보내고 오빠 양운교씨가 김 부자택 서사가 되어 해룡면 일대에 있는 김부자 논을 관리하면서 소작료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 집 앞앞에 노적으로 쌓아두었다가 배로 실어 척동으로 운반했다. 그런 과정에서 양운교씨도 천석군(千石君)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천석군 부자의 흔적이 현재는 기와집 한 채와 그 영향력을 보여주는 김병로 대법원장이 짓고 박종화 소설가가 쓴 성씨 열너비가 남아 있다.

고자네 마을을 이번에는 바로 찾아가 녹취하리라 마음먹고 별량면 사람을 찾았다. 어떤 분이 고자네 마을에 사는 사람을 잘 안다고 하더니 그 집으로 전화를 해서 김기창 뒤로 살았다는 고자 명단을 건네주었다.

10월 어느 날 척동에 사는 박동진 님을 찾아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잿물(尺洞) 너머 큰 동네가 내시(內侍)마을이라다. 척동길 32안쪽 1000여 평의 대지가 내시대감 집터라고 한다. 안채 사랑채 문간채등은 헐리고 없다. 다만 창고로 쓰던 2층 건물만 잡초에 묻혀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았을 정원수가 있고 대문 앞에 못이 있었는데 지금은 매립해 주차 공간으로 쓰나 몇 백 년 풍상을 겪어 고사 직전의 왕버들나무 한 그루가 지난 일을 다 안다는 듯이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

이 마을에 살았던 1910년 이후 내시는 두 집안이였다. 남용기 가정과 김기창 가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증언한 내시를 보면 남용기 문경호 박인수와 문계관 변태관 김재창 최복철 최복선 박동선 박홍래인데 최복철과 최복선은 형제관계이며 박동선이 1990년대까지 창고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별량면 상림리에 비석을 모아놓은 곳이 있다. 거기에 내시부(內侍府) 통훈대부(通訓大夫) 김공기홍(金公基洪) 구홀비(救恤碑) 내시부(內侍府) 통훈대부(通訓大夫) 김공재창(金公再基昌) 시혜(施惠)기념비(紀念碑)가 있고 서면 압곡리 건천 다랏목에 내시부(內侍府) 통훈대부(通訓大夫) 남용기(南公容基) 시랑(侍郎) 기념비(紀念碑)가 있다.

김기창은 8000석군(石君) 부자였다고 한다. 흥년에 먼 민의 세금을 내주고 수곡을 감해주며 별교에 송광사에 서 세운 송명학교 부지로는 3마지기를 기부하고 낙안 향교 증건에 희사한 기사가 1923 동아일보에 있다.

내시부는 조선시대 대내(大內)의 감선(監膳) 전명(傳命) 수문(守門) 소제(掃除) 등을 맡아보던 관아인데 태조 원년(1392)에 설치하여 고종 31년(1894)에 폐지하였다. 품계를 보면

- 종2품 상선(尙膳)
- 종3품 상온(尙?) 상다(尙茶) 종3품 상약(尙藥)
- 정4품 상전(尙傳) 종4품 상책(尙冊)
- 정5품 상탕(尙帑) 종5품 상호(尙弧)
- 정6품 상세(尙洗) 종6품 상촉(尙燭)
- 정7품 상훼(尙卉) 종7품 상설(尙設)
- 정8품 상제(尙除) 종8품 상문(尙門)
- 정9품 상경(尙更) 종9품 상원(尙苑)

모두 15품계가 있다. 김기창과 김기홍 비석에는 직함이 없다. 김기창은 '낭청' 벼슬을 했다고 구전한다. 그런데 남용기 비석에는 시랑(侍郎)란 직함이 새겨 있다. 김기홍 김재창 남용기 내시는 조산왕실에서 내시로 있다가 나라가 망하니까 낙향한 것 같고 다른 내시는 이분들의 양아들이다. 땅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 땅 부자가 부자 일 때는 척동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집에 기생하다시피 하면서 살았는데 농지개혁으로 토지를 잃자 재물도 없어지고 권세도 사라지고 말았다. 따라서 권세를 부리던 지난날의 내시 영화는 이제 찾을 길이 없다. 일반 사람 같으면 아들이 뒤를 이어 오지만 내시 곧 고지는 후손이 없다. 돈이 없어지니 집안 자

체가 불티처럼 허공으로 날라 가 버리고 그터만 남았는데 주인도 바뀌고 말았다.

세를 누리고 살 때 설로 세배를 가면 내놓은 음식이 궁중 음식 그대로였다고 하며 1930년대 김재창의 초상 때 10일장을 치렀는데 만사(輓詞)를 든 사람이 척중에 서 원창까지 이었다 한다.

언제 왜 내시가 척동에 정착했는지 알 길이 없다. 마을 사람들이 내시가 시제(時祭)를 지낸 묘가 5기나 있다고 했다. 한 집안은 2기 다른 집안은 3기의 묘에 시제를 지냈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가까운 묘를 안내받아 찾아가보았다.

지금은 감나무 과원으로 변한 곳에 묘가 있었다. 묘인지 밭 언덕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망주석이 하나가 비스듬히 서 있고 묘 앞에 표석이 서 있다. 전면에 내시부(內侍府) 통훈대부(通訓大夫) 정공(鄭公) 상온(尙醞)○○之墓

配○○부인○○○씨

라 새겼는데 상온 이하는 땅에 묻혀서 글자를 읽을 수 없었다.

후면에

가경(嘉慶)九年

이란 기록도 보였다.

가경(嘉慶)9년은 1804년이다. 일반인의 비석에는 시조 중시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이 기록되는데 내시의 비석에는 양가 가계(兩家家系)가 후면에 보인다. 이점이 다르다. 족보도 있다. 내시족보는 양세계보(兩世系譜)다.

척동의 내시에게도 족보가 있었는데 1980년대에 들어 태워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제각을 지어 제사를 지냈



고 제각 마당에 비석을 세웠는데 제각이 뜯기면서 비석마저 땅에 묻어 버렸다고 한다.

위의 묘비로 보아 척동에 내시가 정착한 시기는 1700년대로 추정된다. 그러나 서울에서 멀고 먼 척동까지 내려와 정착한 까닭이 궁금하다.

「별교 읍지」를 보면 1846년에 명례궁(明禮宮) 전답(田畓)이

초천면-용두평 화어지평 궁농소리 단교평 검복평 송정평 죽림평 화산평

남상면-옹화리평 개곡평 징광평 박강동평

고상면-호강산평

3개면 13개들에 139 필지 27결 2복(卜) 6속(束)이나 되고

1896년에는 25결 71복 7속이 있으며 1901년에는 순빈궁(淳嬪宮) 토지가 10결 42복(182마지기)이나 읍내면 동상면 동하면 내서면 초상면 남상면 남하면 고상면 9개면에 걸쳐 있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1789년의 「호구총수」에 초상면 궁농소리(宮農所里)가 보인다.

그런데 현재도 동화사 계곡에서 흘러내려 두무포 들어가는 계곡에 궁보(宮湫)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내시가 퇴임을 하면 궁내에 머물지 못하고 사가로 나온다. 내시부에 근무하면서 번 돈으로 땅과 집을 사서 권세를 부리고 살았던 것이다. 그래서 서울 근처에 사는 내시마을이 많다. 남원에도 내시 마을이 있으나 별량면 척동처럼 서울과 거리가 먼데 내시가 정착한 것이 이채롭다.

명례궁과 순빈궁에서 근무하던 내시가 그 토지에 의지해 정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지방 사람이 내시가 되어 돈을 모아 고향에서 세를 부리며 살려고 정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내시는 역사의 유물이다. 우리 지방에 내시가 살았다는 사실 그자체가 역사교육의 자료다. 묻혀 버리기 전에 땅에 묻힌 비석을 찾아내 세우고 내시 집도 복원해서 관광 자료로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진인호** 순천문화원 부원장



사 계 절 의 | 가 향 주 와  
변 화 를 담 은 술 | 그 문 화

술





우리나라와 같이 술에 향기를 드리우는 가향주법(加香酒法)의 양조기술을 가꾸어 온 나라는 드물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가향주(佳香酒)' 또는 '향약주(香藥酒)'로 불리는 발효주를 대중이 즐기는 민족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 고유의 음주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가향주 제조는 주로 꽃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봄철에 주로 이뤄지지만, 여름과 가을, 심지어 겨울철에도 계속해서 술에 꽃향기를 드리우고 이를 즐겨왔다고 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향주와 고유한 음주문화를 통해서 술에 계절감과 풍류를 담아내는 한국인의 독특하고 낭만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추위가 풀리면서 시작되는 꽃들의 축제를 맞이하여 술빛기를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가향주 몇 가지와 술의 향기와 맛에 따른 특징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두견주(杜鵑酒)

봄이면 온 산과 들을 연분홍 꽃물을 들이는 진달래를 '두견화(杜鵑花)'라고 하는데, 봄의 정취를 한껏 돋궈주는 꽃이면서 식용이 가능하여 화전을 부치고 나물로도 무쳐먹는데, 진달래를 넣어 빚은 두견주가 그중 으뜸이다. 두견주는 꽃의 향기뿐만 아니라, 혈액순환개선과 혈압강하, 피로회복과 친식, 여성의 허리냉증 등에 약효가 인정되어 신분의 구별없이 가장 널리 빚어 마셨던 국민주였다.

충남의 당진이 명산지로 알려져 있으나, 지방에 따라 가전비법에 따라 술 빚는 법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옛 문헌인 <고려대규합총서>를 비롯 <시의전서> <김승지맥주방문> 등에도 각각 다른 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일반의 가양주로 전해오는 두견주는 찹쌀로 빚고 있으나, 형편에 따라 맷쌀로 빚기도 하고 찹쌀을 섞어 빚기도 한다.

이러한 두견주는 끈적거릴 정도로 단맛이 강하고 진달래꽃의 꽃빛같이 그대로 술에 녹아들어 진한 담황색을 자랑하며, 독특한 향취를 간직하고 있어 가향주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 도화주(桃花酒)

필 때 빛는 계절주이면서, 복숭아꽃이 피는 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도화주는 개성지방에서 즐겨 빚어 마셨다고 전해지고 있다. <고사촬요>를 비롯 <산림경제> <증보산림경제> <부인필지> <동국세시기> <임원십육지> <김승지맥주방문> 등 여러 문헌에서 술빚는 법을 볼 수 있는데, 문헌마다 재료나 방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나 기본적인 법은 같다고 하는 점에서 아마도 선비들 사이에서 계절주를 즐겼던 술이었을 것이란 생각을 하기에 이른다. 정월에 술밑을 만들어 두었다가 복숭아꽃이 피면 꽃과 꽃가지를 꺾어다 덧술과 함께 넣어 빚고 서늘한 곳에 두고 익혀 단



구멍떡 익반죽하는 모습



술독은 1차로 짚불연기에 소독한다.

오일 전후에 마시는데, 봄철에 빛는 술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초여름에 마시는 술로써, 복숭아꽃이 피는 봄철에 빛고 더워지기 시작하는 여름철에 즐기면서 가는 봄을 노래하던 옛 시인들의 정취와 풍류를 짐작케 해준다고 하겠다. 옛날에는 주막에서 시절주(時節酒)로 시인들과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았거니와, 그 맛과 향취가 얼마나 좋은지 이 도화주를 마시는 날은 무릉도원의 신선들이 사는 세계가 이상향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들 수도 있다.

### 송순주(松荀酒)

봄이 절정에 이르는 때에 빛는 가향주이다.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상비주이자 고급 방향주로 널리 자리매김해 왔던 술로, 노인들의 건강을 돕는 반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봄철에 소나무의 새순을 채취해서 술빚기에 이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찹쌀로 지은 고두밥에 누룩과 물, 송순을 넣어 발효시키는 방법과 먼저 빚어 둔 곡주를 증류하여 소주를 만들고, 다시 곡주를 빛는 과정에서 송순과 소주를 넣어 발효시키는 혼양주법의 송순주가 더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혼양주라야 저장성이 좋고 송순주 고유의 맛과 향기를 배가시켜 술의 흥취를 한껏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혼양주법의 송순주는 우리 고유의 술빚기 형태로서 가장 한국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가장 세계적인 술로 그리고 가장 차별화된 주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창포주(菖蒲酒)

과거 4대명절의 하나였던 단오날에 즐기는 술이 창포주이다. <동국이상국집>을 비롯하여 <포은집>과 <목은집> 등 고려 말기의 문인들에 의해 씌어진 기록들에 창포주가 등장하는데, 이 기록들이 여말, 조선 초기의 문헌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고려 말에는 창포주를 마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접어들면 <임원경제지>, <고사십이집>, <양주방> 등 음식관련 고문헌에도 “5~6월 경에 창포뿌리를 캐어 즙을 낸 다음, 찹쌀로 지에밥을 찌서 누룩과 합하여 빚는다.”고 창포주 제조법을 실고 있다. 또 별법으로 잘 익은 청주(淸酒)에 단오일 며칠 전에 창포뿌리나 잎을 침지하여 빚는 창포주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듯 단오날 창포주를 마시는 풍습은 창포의 방향성과 약성을 함께 취함으로써, 더위지를 여름을 대비하여 건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조선 중기 김종직의 <점필재집>에 “창포주로 서로 맞이 하니 얼굴이 붉도록 취하고, 서울거리에 먼지가 이니 태양이 타는듯하네. 다리엔 채색 실을 걸고 다투어 웃고 즐기니 농가에 양식이 떨어진 것도 아랑곳 하지 않네.”하고 노래한 시에서 보듯, 창포주가 단오절의 절기주로 민간에 뿌리를 내려왔으며, 조선시대 후기까지 시인묵객들 사이에 애음의 대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연엽주(蓮葉酒)

흔히 전통주는 여름철에는 잘 빚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연엽주라는 술을 알고 나면 우리네의 술 마시는 취향이나 풍류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다. 연엽주는 옛 기록이나 집안에 따라 술 빚는 법에서 차이가 있는데, <중보산림경제>의 기록을 보면, “찹쌀고두밥에 백곡을 섞어 버무린 다음, 연잎으로 싸서 띄운다.”고 하였고, <사시찬요>와 <산림경제>에는 “끓여 식힌 물을 부어 고두밥을 식히고, 가루누룩을 섞어 빚은 술밑을 술독에 안칠 때 연잎과 누룩가루를 켜켜로 안치고 찬 곳에서 익힌다.”고 수록되어 있다.

전승 가장주로서 충남 아산 지방 예안이씨 가문의 연엽주가 있는데, <규합총서>와 같은 술 빚기를 바탕으로 하되 감초와 솔잎 등의 부재료가 첨가된 향약주로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아산연엽주는 특별히 빚은 신곡(神)을 이

용한 주품으로,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양조기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연꽃이 피어있는 못가에 조각배를 띄워놓고 술자리를 마련하여 즉석에서 연엽주를 즐겼을 옛 사람들의 풍류야말로 음주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연엽주의 방문이 다양한 것은 여름철의 대표적인 주품으로 자리잡고 있었다는 사실의 반증이며, 무엇보다 연엽주의 향기가 그만큼 뛰어나고 건강에도 좋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 국화주(菊花酒)

가을의 대표적인 술은 역시 국화주가 으뜸이다. 우리 풍속으로 가정에서는 찹쌀가루 반죽에 산에서 채취해 온 국화꽃잎을 얹어 화전(花煎)을 부치고, 술에 국화꽃잎을 띄워 만든 국화주를 시식으로 즐겼다. 또한 문사들 사이에서는 국화주를 벗 삼아 시를 짓고, 풍월을 읊는 산음(山飲)과 시주풍류(詩酒風流)를 한껏 즐겼다. 작고 노랗게 핀 들국화는 감미가 있어 배주머니에 담아 술 위에 띄우는가 하면, 고두밥과 누룩을 버무릴 때 직접 넣어 숙성시킨 방법이 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국화주는 아름다운 향기 외에 뼈와 근골을 튼튼히 해주며, 몸이 가벼워지고 말초혈관확장과 청혈해독의 효능이 있어 장수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국화주는 조선시대 여러 문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동의보감>, <요록>, <고사십이집>, <고려대 규곤요람>, <임원십육지> 등에 국화주는 중앙절에 즐기는 절기주이자 민가에서 가장 널리 빚어왔던 가향주로 소개하고 있다.

### 초백주(椒柏酒), 백엽주(柏葉酒)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해의 끝인 세모와 돌아오는 새 해의 설날부터 한 달 가까이 몸을 삼가고 정신을 가다듬는 것으로 예를 삼는데, 이때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서로 축원하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었다. 새해 첫날 차례를 지내고 술에 대황, 길경, 오두, 천초 등을 술에 넣어 잠깐 끓여 마시는 ‘도소주(屠蘇酒)나 천초와 잣나무잎을 넣은 ‘초백주’ 등의 음주풍속이 그것이다. 이들 재료의 “강하고 좋은 향기가 사악한 기운을 물리쳐주어 한해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풍속은 고려시대부터 성행하여 대표적인 음주문화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조선시대 전기의



초백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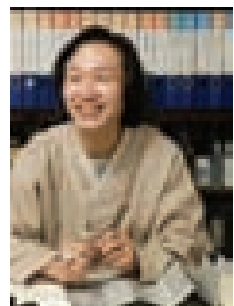
박록담 한국전통주연구소장

남용익(1628-1692)의 <호곡집>에 '선달 그믐날 밤 옥당에서 읊다' 라는 시를 보면, "임금님은 자애롭게도 이제 막 '초백주' 를 나누어 주시니, 맑은 술 향기에 온통 자고 새 굶는 냄새라네." 하는 내용과, 동시대의 시인으로 유명했던 임상원(1638-1697)의 <염현집>에 수록된 '제야' 라는 시에도 "초주 받으니 마음이 즐겁고, '백엽주' 서로 권하네."라는 내용을 읽을 수 있다. 이로써 세모에 초주나 도소주, 백엽주를 마시면서 새해를 맞이 하는가 하면, 임금이 마시고 더불어 신하에게 내리는 선시주의 하나로, 또 신분의 구별 없이 널리 유행하였다는 사실은, 가족이 함께 도소주나 백엽주를 마시면서 새로이 시작되는 성스러운 날을 뜻 깊게 맞이하고 일년 내내 건강하게 지내고자 하는 인간의 순수한 본성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 백화주(百花酒)

우리나라 가향주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술은 아마도 백화주가 아닐까 싶다. 백화주는 엄동설한에 반쯤 핀 설중매를 비롯하여 1년동안 동백 · 진달래 · 살구꽃 · 복숭아꽃 · 자두꽃 · 연꽃 · 앵두꽃 · 국화 · 창포꽃 등 온갖 꽃이 피는 때에 송이재 따서 물에 깨끗이 씻어 그늘에 말린 다음, 종이봉투에 담아 보관해 두었다가 중앙절에 이 꽃을 이용하여 술을 빚는다. 옛 문헌을 상고하면 <증보산림경제>, <규곤요람>, <임원십육지> 등이 있는데, <규합총서>에 "국화와 같이 꽃은 마른 후에도 향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꽃을 주장을 삼고 복숭아, 살구꽃, 매화, 연꽃, 구지자꽃, 냉이꽃 등은 약효가 인정되는 꽃이므로 그 양을 넉넉히 넣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또 <규곤요람>에는 "금은화 · 국화 · 송화 · 매화 등 온갖 꽃을 백가지로 모아서 말렸다가, 모시자루에 담아 향아리 밑바닥에 넣고 술을 빚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백화주는 원기를 보(補)하는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술을 빚은 지 50여일 만에 용수를 박고 다음 날 채주를 하였더니, 마치 온갖 향수를 뿌려 놓은 것처럼 기이한 방향(芳香)으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으며, 맛 또한 특별했다. 나는 백화주를 맛본 후로 "감히 백화주를 맛보지 않고서는 가향주의 참맛과 술의 향기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서슴없이 말하곤 한다. 무엇보다 그 향기가 뛰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 전통주의 우수성과 진면목을, 그리고 양주수입 세계 1위국가라는 오명을 떨치고, 전통주도 세계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백화주를 비롯한 전통 가향주에서 찾게 되었다.



박록담 한국전통주연구소장  
숙명여대 대학원 객원교수

# 무속의례에서 쓰이는 꽃 — 신화(神花)

“  
물질자료로서의 꽃은  
의례 속에서  
중요한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의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봉축(황해도권)

## 의례가 표현하는 의미를 말해주는 꽃

무속에서의 꽃은 신(신령), 사제(무당), 신도(참여자) 등과의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서 무속적 사상을 대변하는 매개체이다. 신, 사제, 신도 사이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상징적 부호로 작용하여, 의례를 통해 구현되는 또 다른 삶의 내용을 설명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테면 죽은 망자를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 지노귀굿에서 바리공주 사설을 읊으며 땀살이꽃, 살살이꽃, 숨살이꽃 등의 꽃 이야기들이 구송하게 되는데 이러한 꽃들은 죽은 이의 몸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재생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물질 자료로서의 꽃은 의례 속에서 중요한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의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종이로 만든 꽃, 지화(紙花)

무속의례를 통해 그 의미와 기능이 구체화 되는 신화는 사시사철 신령님이 계시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피어있는 꽃으로서, 재생과 영원불멸을 상징하는 신비스러운 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꽃들은 모두가 종이로 만든 지화(紙花)이다. 생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들은 근래의 일이고 원칙적으로 손수 종이로 만든 지화를 사용한다. 지화를 사용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굿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꽃은 신령님과 관련에서만 쓰이므로 일명 신령님의 꽃이라 부른다. 신령님 꽃은 신당에 올려질 수 있도록 다듬어야 하는데 이것은 제작된 꽃이야 가능하다. 예를 들면, 여러 다른 종류의 꽃들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든지, 꽃 위에 나비를 앉힌다든지, 꽃송이를 정해진 수에 맞추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다. 둘째, 굿에서 사용되는 꽃은 계절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꽃마다 개화 시기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셋째, 꽃의 색채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하는 물감으로 채색을 해야 하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제작되어진 꽃이기 때문이다.

## 지화의 여러 의미

지노귀굿의 일종인 새남굿의 사제삼성거리에서 무당은 망자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사자'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죽은 망자를 상징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무당은 주황색 두루마기를 입고 왼쪽 자락을 접어놓고는 뒤로 끈을 묶는다. 머리에는 무명과 베를 반으로 찢은 것을 새끼를 꼬듯이 꼬아서 머리에 묶는다. 꽃모양이 큰 가지꽃(혹은 머리꽃) 두송이와 말미종이를 머리 뒤쪽에다 꽃고 입에는 산자를 문다. 그리고 등에는 명태를 매는데, 이 명태는 곧 망자로, 망자를 얹어가는 행동을 상징화하는 것이다. 이 거리에서

1. 해달꽃(황해도굿)
2. 눈설화꽃  
(서울굿, 이영희 크만신 제작)
3. 칠성화(황해도굿)
4. 살제비꽃  
(서울굿, 이영희 크만신 제작)
5. 삼층대수팔연  
(서울굿, 이영희 크만신 제작)





5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에서는 보통 연꽃의 만개로 상징되는 불계(佛界) 즉, 불교적 윤토피이는 생명의 창조적 활동을 축원하거나 재생의 기원적 상징물처럼 여겨졌던 것과 연계지어 생각할 수 있겠다.

### 무속의례 속에서의 꽃

신화는 단순히 만들어진 조화(造花)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신화의 소재들은 도교, 불교적인 요소들과 신화적(神話的)인 모티브를 인용하고 있다. 한편으로 무교의 종교적인 맥락에서 신화는 신이 하강하는 통로이며, 신이 가장 먼저 접하는 대상이다. 신을 위해 봉양하는 꽃이며, 신을 부르고 모시고 놀리고 보내는 꽃이기도 하다. 또한 의례 속에서 신이 깃들어서 있다고 믿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신화는 請神, 奉神 娛神, 送神의 의미를 모두 지닌 神具라 볼 수 있겠다. 무속의례 속에서의 꽃은 크게 네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신격을 상징한다. 이는 백련화 혹은 천궁맞이꽃이 천신으로 상징되며, 신이 깃드는 대상이라는 점에서이다. 둘째는 기복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신화 자체에 기복, 장수, 태평성세 등의 소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겠다. 셋째는 무속적인 이상세계인 극락을 상징한다. 즉 꽃 자체가 극락 혹은 이상세계로 상징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재생의 의미를 지니, 재생을 가능케 해 주는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무속의례에서 쓰이는 꽃은 그 형식이 지방마다 약간씩 다르

무당의 역할이 이중적이기에, 꽃의 의미 또한 이중적이라 할 수 있겠다. 무당이 사자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 이 꽃은 죽은 망자를 높은 곳으로 모셔간다는 의미이며, 망자를 상징할 때는 곧 저승의 이상세계를 상징한다. 즉 꽃이 만발한 이상세계로서, 저승이 표현되는 것을 의미

다. 지방에 따라서는 꽃 진설보다는 여러 가지 신령 형상을 한지에 오려 진설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굿에서는 오래전부터 화려한 꽃을 제작하여 사용해 왔으며 그러한 전통이 아직까지도 구대만신들 사이에서 지켜지고 있다. 다음은 서울굿과 황해도굿에서 사용되는 꽃들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수팔연

수팔연은 식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꽃이다. 다만 종교의례를 통해 오랫동안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 존재해 왔다. 무속 화보집 蘭谷의 『巫黨來歷』에서 서울굿 그림 자료에 서울굿 형식의 수팔연꽃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형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백색의 종이로 만들어진 백련화이고 다른 하나는 원색의 종이로 만들어진 수팔연이다. 굿의 중요한 거리에서 수팔연꽃은 빠지지 않고 있으며 진설되는 수팔연 위치가 정중앙이라는 점, 무속의례에서 중요한 제물인 떡 위에 놓여진다는 점 등으로 보아 수팔연이 차지하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서울굿 무속의례에서 수팔연이 완전함을 이루려면 여러 가지의 식물과 부속품들로 구성원이 필요하다. 식물로서는 하는데 여기에 연꽃, 목단꽃, 매화, 난꽃, 동백꽃, 다리화, 도라지꽃, 단풍잎 등이 포함되며 곤충으로는 나비, 무당벌레가 있으며 조류로는 학, 백두조, 원앙 등이 들어가고 그 밖에 장식품으로서 남극노인, 동자 선녀 등이 있다. 무속의례에서의 수팔연은 규모에 따라 1단 짜리, 2단 짜리 그리고 3단 짜리가 있다. 1단 짜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규모의 굿에 두루 사용되며 굿을 조금 크게 하면 2층 짜리가 사용되고 천근새남 같이 대규모의 굿에서는 3층짜리 수팔연으로 장식하게 된다. 크기에 상관없이 이 꽃은 오색인 빨강, 하얀, 노랑, 파랑, 분홍의 오색의 꽃으로 장식한다.

### 살제비꽃

살제비꽃은 상상의 꽃으로써 서울굿의 모든 굿에 늘 사용되는 꽃이다. 이 꽃은 변화무쌍한 꽃으로서 국운이 위태로우면 반대로 밤에 피고 낮에 시드는 꽃으로 알려져 있다. 살제비꽃은 바리데기 신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바리데기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해서 '바리데기꽃' 이라고도 한다. 즉 이 꽃은 다시 살이란



다는 재생과 환생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 눈설화꽃

눈 속에 피는 꽃으로 천궁맞이굿, 지노귀굿, 경사굿 등에 사용되며 대문 앞이나 조상님상 한쪽에 진설된다.

### 해달꽃

해달꽃은 식물로는 존재하지 않는 꽃이다. 그러나 무속신앙에서 일월신앙(日月信仰)의 사상과 함께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일월(해와 달)은 남과 여의 관계처럼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밝은 낮을 만드는 해와 어둠을 만드는 달이 합쳐져 하루가 생성되고 그로인해 달이 되고 해가 되어 인류 삶이 지속되는 것처럼, 이 둘은 우리 삶에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여 왔다. 해달꽃은 풍요와 번영과 그리고 생명력의 원천으로 상징된다. 해(太陽)는 천하에 밝음(빛)을 주어 생명이 주어진 인간, 동물, 식물을 살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자연환경이 제 구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위대한 존재로 군림한다. 또한 인간 삶 속에서는의 해는 빛나는 벼슬, 집안이 잘되는 것 등 모든 부귀영화를 뜻하는 상징적 존재이다. 이외는 달리,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지구 주위를 빙빙 돌면서 태양빛을 거울처럼 반사하여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달빛은 햇빛과는 또 다른 빛을 낸다. 즉 달빛은 어둠과 함께 있으면서 은은함과 부드러움으로 대변되고 어둠을 몰아낸 다기 보다는 어둠의 일부를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재생과 풍요의 상징으로서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신앙적 대상으로 상징된다. 이러한 해달꽃은 천지 주야를 구분하고 동시에 온 천하를 밝히기 위한 꽃으로 모셔진다. 일월을 상징하는 빨강과 노랑 두 송이의 큰 함박꽃(모란)이 굿청 중

### 칠성꽃

칠성꽃은 식물로는 존재하지 않는 꽃이다. 그러나 황

해도 무속에서는 종이로 백모란꽃을 종이로 만들어 칠성님의 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형식은 황해도 형식의 수팔연이다. 수팔연이 되기 위해서는 백모란 28수 또는 33수를 합쳐 한 다발을 만들고 꽃 상단에 잎이 커다랗게 핀 연꽃을 얻는다. 때에 따라서는 꽃 송이를 더 넣어서 꽃이 더욱 크게 만들기도 한다. 수팔연 중앙 상단에는 연꽃을 크게 만들어 꽃봉오리를 올려 쫓는다. 금박지로 나비를 만들어 가느다랗게 작은 참대에 붙여 꽃잎에 나불나불하도록 붙인다. 이렇게 해서 짚으로 삼발이를 만들어 기둥을 세워서 쫓는다. 또는 큰 놋그릇에 담긴 쌀이나 떡 위에 쫓던지 아니면 대두병(大斗瓶)에 쫓는다. 한편, 이러한 형식의 칠성꽃과는 달리 꽃을 전면으로 피게 하는 칠성꽃이 있다. 이 때는 일곱송이의 흰 꽃송이를 짚으로 만든 꽃대에 꽃아 정면으로 보이도록 하는데 이것을 굿청 중앙에 모셔진 신령님 상단이나 아니면 굿청 좌우 벽면에 쫓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은 근래에 유행하게 된 새로운 것이다.

### 봉죽

풍어를 기원하거나 상징하기 위해 뱃굿이나 배연신 굿에서 사용한다. 또한 어촌에서 대동굿을 할 때에도 봉죽을 설치한다. 오색의 색종이를 나불나불 기다랗게 오려 기다란 대나무 가지에다 붙인다. 서리화를 기다랗게 만들기도 한다. 꽃잎이 꽃힌 여러 개의 깃대 가닥을 다발로 묶어 굿청 양옆 그리고 도가집 대문 앞에 세워 둔다.



양종승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 지역의 곡우를 살피다

## 강원도 지역의 곡우날 풍습



### 봄의 마지막 절기, 곡우

요즘에 곡우(穀雨)라는 말처럼 듣기 좋은 절기도 없는 듯하다. 곡식에게 이로운 뿐 아니라 가뭄으로 인해 살림살이도 어려움이 많기에 그러하다. 강원도 지역은 마르지 않기로 유명한 태백 황지연못마저 한발(旱魃)로 그 바닥을 보았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이지만 식수마저 곤란을 겪고 있으니 곡우날 적당한 빗줄기가 더없이 고마울 뿐이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마지막 마디에 곡우가 들어 있다. 일년 24절기의 6번째이자 봄의 마지막 절기다.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 성장기 곡식에 이로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순풍조(雨順風調)라는 말이 실감된다. 꽃샘추위의 짓궂은 비바람에 매화꽃잎이 하얗게 떨어지고, 뒤늦은 춘설이 대관령 설경을 멋있게 장식하지만 봄은 봄다워야 한다.

봄을 마지막으로 보내야 하는 청명과 입하의 사이,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철이 이르고 늦음을 곡우날 물고기가 비늘을 번쩍이며

자연신은  
곡우날 빗줄기로  
나무를  
위무하고 있음을  
느껴야 하는  
생명 순환의  
큰마디가  
곡우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조선시대 풍속지 열양세시기에 소개되어 있다. 음력 3월경 태양의 황경이 30도에 있을 때 곡우가 들어 있음은 이 때 내리는 봄비가 백가지 곡식을 기름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곡우에는 모든 곡물이 잠을 깬다'고 말하며, 그렇지 않고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고 믿었을 정도다. 양력 4월 20일이 곡우이고 여름이 들어선다는 입하가 5월 6일이므로 계절은 벌써 농사일로 분주할 여름으로 내달리고 있다.

벼농사와 깊은 관련을 맺은 곡우날

곡우는 벼농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에서는 곡우날 법씨를 물에 담근다. 법씨를 담그고 나면 향아리에 금줄을 쳐서 나쁜 일을 막는데, 부정한 사람이 보면 법씨의 싹이 트지 않는다고도 한다.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에서는 모판에 참나무를 작게 잘라서 넣거나 꽃나무 뿌리 등을 거름으로 넣고 법씨를 담근다. 법씨를 모판에 담글 때 피하는 날이 장날이다.

'가던 날이 장날'이라 했던가, 하지만 5일장이 열리는 장날에 법씨를 담그면 '법씨가 장에 가겠다고 기어 나온다'는 것이다. 법씨를 의인화한 표현도 재미있지만, 농부의 마음이 분주한 장터에 가 있으면 차분하게 법씨를 제대로 골라서 파종하지 못함을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창군 하진부리에서는 장날이라 하여도 사시(巳時, 오전9시~11시)를 피해서 법씨를 담그면 괜찮다고도 말한다. 이 시간에 일을 하면 '법씨가 물에 떠 내려간다'는 속신이 전한다. 비가 많이 와서 모판에 뿌린 법씨가 떠내려가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기에 이러한 금기가 전한다. 또한 법씨를 담근 향아리에 솔가지를 꽂은 금줄을 치고 고사를 올린다. 개구리나 새가 모판을 망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씨 담근 날 밤에 농부가 메를 지어서 논가에서 고사를 올리고 간단하게 풍년을 기원한다. 농부의 진솔한 마음이 말 못하는 작은 법씨 알갱이에도 이심전심으로 전달될 것이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믿는 농심이 곧 천심이다. 예전에는 파종기인 곡우 무렵에는 죄인도 잡아가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이 무렵에는 부지런히 법씨를 담가 못자리를 해야 한다. 재래종 벼는 신품종보다 20일정도 늦게 못자리를 하므로 이 시기를 치면 농사를 그르친다.

강원의 곡우물 채취

강원도 인제지역의 곡우물 채취는 소문이 났다. 곡우날이 되면 귀둔리 버당마을에서는 뒷산에 자생하는 박달나무에 구멍을 내고 거기서 나오는 수액을 받아 마신다. 박달나무 수액을 '단목'이라 하는데 이것을 마시면 속병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매년 3월에 개최

하는 인제군 상남면 미산계곡의 방태산 고로쇠축제가 벌써 제6회를 맞이하였고, 양구군 남면 대암산과 백석산 700미터 기슭에서도 1만 5천리터의 고로쇠를 채취하였고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목도소리 전승마을과 설악산, 태백산, 오대산 등지에서도 수액채취가 한창이다. 곡우물 한통이 기름한 통 값과 같다고 하여 산촌에서는 부지런히 수액을 채취한다. 강원도에서는 고로쇠나무의 수액은 채취원증을 소지한 지역주민에게만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금년에 채취한 나무는 내년에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하여 보호하고 있다. 또한 지름 10센티 이하의 나무는 채취를 금하고 아무리 굵은 나무라 해도 한 개의 나무에 3개 이상의 구멍을 뚫을 수 없도록 하는 수액채취 및 관리지침에 따라 채취지역과 채취일시를 표기하고 있다. 올해 강원도내 춘천·양구·인제·홍천지역의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수액은 23개 마을에서 7만리터로 무려 2억원을 소득을 올릴 예정이다. 이처럼 한국인이 수액을 즐겨 마시는 풍습을 미국뉴욕타임지에서 '진귀한 만능약'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국제적 상품이 되었다. 자연건강 음료로도 개발되어 시중에 나오는 고로쇠 수액은 봄철 나른한 신체에 활력을 주고 있기에 우리가 봄철에 수액을 받아 먹는 풍습은 오래된 것이다.

### 생명 순환의 큰 마디, 곡우

통일신라 때 도선국사가 이른 봄날 깨달음의 경지에서 무릎이 펴지지 않아 부러진 나무에서 떨어진 수액을 마시고 일어섰다는 고로쇠는 일명 골리수(骨利水)라 하여 뼈에 이롭다고 전한다. 그 유래는 알 수 없으나 경칩에 채취한 고로쇠 물은 남자에게 좋고, 곡우의 고로쇠 물은 남자물이라 하여 여자에게 특히 좋다고 한다.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곡우 무렵은 나무에 물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로서 자작나무나 박달나무 수액은 위장병이나 신경통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미네랄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풍부하여 골다공증, 피로회복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봄날 한줄기 비처럼 그저 고마울 뿐이다. 그러나 몸에 이롭다는 수액도 아무 때 채취하는 것이 아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일교차가 심한 시기를 택하는데 1년 가운데 밤 기온이 영하 3~4℃가 되고 낮 기온이 영상 10~15℃로서 이 시기에 채취해야 좋은 수액을 얻을 수 있다. 단풍나무류는 경칩을 전후한 10일, 자작나무류는 곡우를 전후한 10일 정도에 받아야 좋다고 한다. 수액의 품질을 좌우하는 날씨는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따뜻하고 바람이 없어야 고로쇠 물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전체 면적의 8할이 산으로 둘러싸인 다산소야(多山少野)의 청정 강원도에서는 봄철 농한기의 고소득 품목으로 수액이 자리 잡고 있다. 농한기 소득창출의 측면만 부각될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나무'들에게 자연신은 곡우날 빗줄기로 나무를 위무하고 있음을 느껴야하는 생명 순환의 큰 마디가 곡우다.



**장정통** 강릉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중부지역 곡우(穀雨)의 세시적 의미

### 봄비가 내려 곡식이 윤택해진다는 곡우

24절기와 세시명절은 철갈이의 상징이다. 철이 바뀌고 이에 따라 삶의 원리를 깨닫는 이 치에는 전통사회에서 진정 어른 대접받는다고 믿었던 생각이 담겨 있다. ‘철이 든다’ 또는 ‘철이 들어 사람이 되었다’, ‘철 따라 맛이 있다’ 등의 표현은 철갈이의 뜻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봄철갈이에서 한식, 청명, 삼짇날, 곡우는 봄철의 세시명절 또는 24절기다. 곡우(穀雨)는 봄비가 내리서 온갖 곡식이 윤택하여진다는 뜻으로 태양의 황경이 30°에 있을 때이다. 곡우의 세시성과 절기성은 물의 생동감에 있다. 중부지역 곡우 절기에는 맛과 놀이, 의례, 속신 등이 어우러져 있다. 매년 음력 3월 25일(보통 양력 4월 20일 전후)이다. 봄날의 절정인 셈이다. 잎이 힘을 받고 약발이 통하는 시기다. 봄맛의 극치다 봄내음새의 최상이다.

이십사번화신풍(二十四番花信風)은 24절기(節氣) 가운데 소한(小寒)에서 곡우까지 부는 바람으로 ‘꽃이 피려고 함을 알리는 바람’이라는 뜻이다. 곧 ‘꽃이 필 무렵에 부는 바람’을 이르는 말이다. 준말로 꽃의 전령과 같은 화신풍(花信風)이라고 하기도 한다. 바람이 뿌리를 흔들어 튼실하도록 하는 것이다.

### 중부지역의 곡우

중부지역에서 곡우는 예전부터 못자리를 마련하는 절기다. 곡우는 모든 곡식이 잘 자라게 하는 비가 오는 마다동인(節氣)이다. 우주의 움직임이 강한테 만물이 솟구치고 더구나 식물의 용트림이 심하다. 곡식에 필요한 비가 내린다는 곡우는 과거에는 농사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의 하나였다. 곡우 때 못자리를 하기 때문이다. 황사에 의한 황우(黃雨)는 경기도에서는 흙비라 한다.

농사 중의 농사인 벼농사의 파종이 있는 날이기에 죄인도 잡아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충청도 지방관아에서는 농민들에게 곡우임을 알려 법씨를 내어주며 못자리를 권장하는 행사로 야단법석을 떨었다. 충북 미호천일대에서 법씨 담가두는 가마니는 술가지로 금기시키고 부정을 막았다. 게다가 파종이 있는 날에는 누구나 어울리는 멋이 있었다. 금강과 남한강 수계(水系)에서 녹차(綠茶)도 이때가 최상의 명품이 나온다. 그래서 우전차(雨前茶)가 세작(細作)으로 일품차라고 부른다. 그윽하고 향기가 짙은 우전차는 바로 ‘곡우’ 전에 딴 차를 말한다.

우전차는 마음을 푸르게 말게 하는 신비의 물약이다. 봄의 절정을 마시는 으뜸차인 셈이다. 우전차는 봄철의 약용차(藥用茶)에서 비롯되었다. 봄철의 약동하는 기운이 뜨거운 물과 상생하여 자아내는 맛, 곡우의 또다른 비밀 세시 유전자(DNA)다. 우전차 녹색의 미감에는 곡우에 대한 충청도 양반들의 지혜가 녹아 있다. 이 얼마나 멋진 신비의 오



감이 살아 숨 쉬고 있지 않은가. 통일신라 때부터 곡우에 약수제(藥水祭)를 지내고 약수 맛에 반해 명산 약수정을 찾는다. 차와 약수는 신라시대 화랑집단에서 관심이 컸다. 약수제는 조정에서 파견된 제관이 산신령 또는 수신에게 다례차를 올리며 태평성대와 그해 풍년을 기원하였다. 충북 청원 초정약수제도 유명하다. 수안보 약수제는 꽃과 함께 그림처럼 펼쳐진다. 약수와 차의 만남이 절정을 이룬 셈이다. 물의 신, 곡우의 신한테 바치는 봄의 제전이다.

### 충부 서해안 마을의 곡우철 먹거리, 조기와 조개

충부 서해안 섬마을에서는 겨울을 보낸 조기떼가 북상하여 조기잡이로 북적거리기 시작한다. 곡우절식으로 곡우를 전후하여 충남과 인천 앞바다에서 잡는 조기가 살찌고 맛이 좋다고

어만두(魚鰻頭)국, 복어국, 곡우살이국, 도미찜 등이 있다.

### 곡우물은 황금물

태백산, 소백산, 속리산 등에 곡우 고로쇠 수액(水液)은 또다른 봄맛이다. 곡우 무렵은 나무에 물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여서 깊은 산 속이나 절로 곡우물을 마시러 가는 풍속이 있는데 다래나무, 자작나무, 박달나무 등에 통을 매달아 수액을 마시기도 하였다. 특히 충남에서는 자작나무 수액은 남자물이라고 하여 여자들이 즐겨 찾았다. 건강의 생명수를 마신다. 이 시기 칩뿌리도 또다른 썩는 물맛이다. 곡우를 차(茶)의 날 또는 약수의 날로 정해 기리면 어떨까. 진정한 곡우의 전통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곡우 때 봄비는 황금물이다. 세시콘텐츠가 필요하듯이 곡우와 같은 절기문화(節氣文化)를 현대적으



하여 장안에서 조기국 먹기를 기다린 날이기도 하다. 바다의 황금고기인 조기를 '곡우살이'라 한다. 곡우살이 조기는 곡우가 들 때, 황해 중부에서 잡히는 조기로 살은 적으나 꼭 찬 알을 가졌으며 연하고 맛이 있다. 곡우살이국은 양반국이라고 하여 경인지역에서 널리 먹었다. 곡우살조기를 소금에 약간 절여 통째로 말린 것을 곡우살굴비라 한다. 참고로 조기는 연평도에서 부안 칠산바다까지 나는 황금물고기다. 금강과 한강을 타는 백두대간 황토가 소금과 만나 빨의 에너지와 해류로 자란 어류(魚類)이다.

서해안 빨에 나는 또다른 별미인 조개는 일미다. 봄 조개, 가을 낙지라는 말처럼 봄 조개는 제일 맛날 철이다. 대합탕, 대합구이가 제맛이 나며 도미가 도톰하게 살이 쫄 때라 도미찜, 도미탕 등을 하면 특별히 맛이 있을 때이다. 곡우 전후 절식으로는 부풀기인 증편, 반달형 개피떡, 진달래 화전, 어채(魚菜), 조기찌개,

로 살려야 한다. 곡우의 물맛, 우전차 축제를 열고 약수제의 길러콘텐츠를 통해 공연화하며, 곡우절식을 문화상품화하여야 한다. 곡우의 지역적 연고를 찾아 세시문화산업화를 시도하여 지역이 향부론(鄕富論)으로 살아나야 한다. 곡우의 계절감은 단비처럼 현대인의 또다른 향수를 자극할 수 있다. 곡우의 맛도 미래의 문화산업이다. 전통세시지식도 황금을 낳는다.



이창식 세명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 봄의 차.

우작이 나오는 때 4월



세상살이가 갈수록 어지럽고 힘들지만  
 올 봄에는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면서  
 거실에 앉아 평소 절친했던 지인이나 가족들과 함께  
 따끈한 차 한 잔 하는 것이 어떨까.



삶의 질을 높이지는 웰빙 바람을 타고 우리의 전통차인 녹차가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봄에 좋은 것은 물론이고 예를 기본으로 한 다법으로 지인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주는 게 바로 녹차다. 올 봄이 가기 전에 지인들과 함께 차를 한잔 우려내 마셔보는 것은 어떨까.

**올 봄 따뜻한 녹차 한잔 어때요**

봄이 오고 마야흐로 햇차가 나올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월 중순에서 5월 초까지 그 해의 첫 차가 생산된다. 흔히 전통차하면 생강차, 국화차, 모과차 등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해 차(茶)라고 하는 것은 차나무의 잎을 써서 만든 것을 뜻한

**봄은 차의 계절** 다. 세계적으로는 중국, 인도,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거의 전 지역에서 생산되는데 우리나라는 지리산 일대인 하동과 보성, 제주도가 주요 산지로 잘 알려져 있다.

녹차의 종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그 중 잎을 따는 시기에 따라 분류하면 우전, 세작, 중작, 대작이 된다. 혹시 차를 즐겨 하시거나 선물로 받은 녹차가 있다면 패키지를 유심히 살펴보자. 녹차 브랜드명과 함께 우전이나 세작이라고 적혀 있을 것이다. 위의 분류 가운데 가장 고급차로 여기는 것이 바로 우전이다. 우전은 곡우 전에 채엽한 어린 잎을 가지고 생산한 차를 뜻하는데 시기적으로 그 즈음이기엔 하지만 칼같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차에는 특유의 떫은맛을 내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어린잎일수록 카테킨의 함유량이 적어 우전을 녹차 중 최고로 치는 사람들이 많고 인기도 높다. 워낙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도 고가로 형성되어 있다.

우전이 나온 후 4월말까지 생산된 찻잎으로 만든 게 세작이다. 세작은 기후에 따라 5월 초순까지 늦춰지기도 하는데 세작까지는 떫은맛이 적고 맛이 좋아 고급차로 분류된다. 입하 이후부터 나오는 것이 중작, 여름까지 생산되는 것이 대작이다. 인기가 그다지 높진 않지만 차 애호가들 중에는 떫은맛이 강한 중작이나 대작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





## 제대로 된 다구를 갖추자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차를 한번 마셔보자. 격식을 차리지 않는 자리거나 사무실 같은 데서 간단히 마시려면 티백에 종이컵에다 마셔도 괜찮겠지만 차를 제대로 마시려면 먼저 다구를 갖추는 것이 좋다.

찰주전자는 차와 물을 담아 차를 우려내는 도구다. 녹차를 우려는 찰주전자는 손잡이가 잡기 편하게 주전자 옆구리에 길게 나와 있는 게 특징이다. 그다음 찻잔 몇 개를 갖추면 기본적으로 차를 우려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다구를 올려놓을 찻상과 찻잔받침, 소량의 차를 보관하는 차호 등이 필요하다.

다구들이 다 갖춰졌다면 그 다음은 물이다. 차를 우려릴 때 쓰는 물은 바위틈에서 솟는 석간수를 최고로 친다. 물이 좋지 않으면 차의 맛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예로부터 차를 즐겼던 다인들은 좋은 차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물을 찾기 위해 애를 썼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간단하게 마트에서 파는 물을 써도 되고 정수기 물을 사용해도 괜찮다.

녹차를 우려릴 때 쓰는 물은 보통 70~80℃의 온도로 맞춘다. 가급적 일단 물을 100℃로 끓인 다음에 잠시 식혀서 온도를 맞추자. 그래야 향과 맛이 잘 살아난다. 차를 마실 때 쓰는 다구들 역시 바로 쓰지 말고 온수에 잠시 담가뒀다가 쓰는 것이 좋다. 차가운 다구에 차를 담으면 차가 급격히 식기 때문에 차의 향과 맛이 잘 살아나지 않는다.

차를 우려릴 때는 적당히 1~2분 정도 우려낸 다음 찻잔에 붓는다. 차의 종류에 따라 뜨거운 물을 부어 바로 찻잔에 담은 차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녹차는 천천히 우려낸다. 너무 오래 우려지게 되면 카테킨 성분이 많이 나오게 되므로 떫은맛이 강해지게 된다. 차를 부었으면 바로 마시지 말고 잔을 입 앞에서 잠시 멈추고 잠시 향을 음미하는 것이 좋다.



녹차를 우려낼 때 쓰는 물은

보통 70~80℃의 온도로 맞춘다.

가급적 일단 물을 100℃로 끓인 다음에

잠시 식혀서 온도를 맞추자.

그래야 향과 맛이 잘 살아난다.



**지인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차는 혼자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두 사람 이상 가족이나 손님들과 함께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인이 차를 우려낸 다음 손님 자리에 있는 잔에 부어 함께 마신다. 행다라 하여 차를 마시는 방법이나 예의에 관한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형식에 치우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며 손님에게 강요한다면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좀 더 차에 깊이를 가지고 접근하고 싶다면 다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우는 것도 좋을 것이다.

중국 당대의 조주선사는 제자들이 도를 묻거나 누군가 가르침을 청하면 언제나 차나 한잔 마시고 가게라는 뜻의 껍다거(喫茶去)라는 말로 대신했다고 한다. 그 간단한 말에는 고승의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었으나 당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너무 억매이지 말고 차나 한잔 하면서 마음을 식혀라는 뜻도 담겨 있을 것이다.

세상살이가 갈수록 어지럽고 힘들지만 올 봄에는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면서 거실에 앉아 평소 절친했던 지인이나 가족들과 함께 따끈한 차 한 잔 하는 것이 어떨까. 따뜻한 차를 목으로 넘기다 보면 너무 아웅다웅 바쁘게 살지 말고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될 것이다.

# 봄의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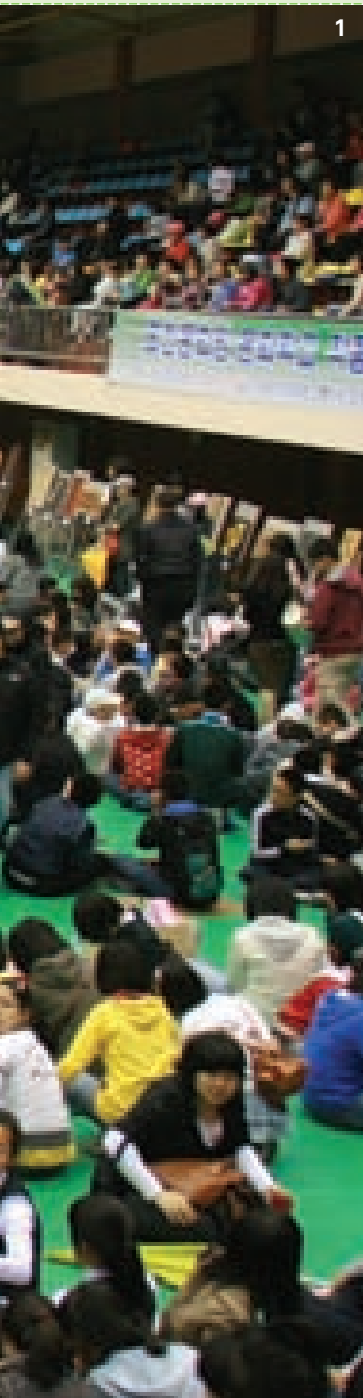
글 · 사진 | 최성덕 여행칼럼니스트

# 문 화 원 탐 방

## 우리요? 그저 포천의 가족인 거죠. 포천문화원

포천에도 문화 관련 기관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에서 문화원이 유독 인기 많은 이유가 뭘까. 터미널에서 내려 포천문화원이 어디냐고 물으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다들 유난이다. 무슨 일 때문에 왔냐, 여기서 금방인데, 하면서 금방 화색이 가득한 얼굴이다.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발을 제게 돌려본다. 경기도 포천문화원을 찾았다.





1



2

### 1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년같이

포천문화원은 일 년이 하루 같다. 한 달에 하나씩 행사한다고 생각하고 지내다보면 어느새 훌쩍 1년이 지나버린다는 김정민 국장이다. 얼마 전에는 경기도 교육청의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기까지 했다. 그래서 더욱 많은 프로그램을 접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포천문화원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는 반월문화제다. 포천 뿐 아니라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도 제법 방문객이 많은 축제다. 반월문화제에서는 네 가지 행사를 연계한다. 백일장, 사생, 서예, 사진촬영대회가 그것이다. 매월 4월 하순에 열리는 이 축제는 투호, 도예, 한지공예 등의 참여행사와 한시백일장, 휘호대회, 향토사 바르게 알기 경시대회 등 열거만으로도 숨이 차게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매년 봄을 열며, 오는 봄보다 더 분주한 포천문화원이다. 이 행사 하나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아직도 얘기할 행사가 많다는 이만구 원장이다.

“시티투어를 마련해서 문화유적답사를 진행하고 문화체험을 합니다. 그 지역에 산다고 해도 막상 아이들을 데리고 나시면 어디서 무엇을 봐야 할지 막막하죠. 그런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에요. 이번에 포천의 역사를 찾아 떠나는 문화유적답사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특히 학부모님들에게 인기가 좋았죠. 한눈에 포천의 문화유적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12월에는 문화인의 밤 행사까지 진행한다. 그 행사만 헤아려도 숨이 차는데 이들은 그저 싱글벙글이다. 이들에게 1년과 하루의 의미는 같다. 그저 늘 그대로, 그 자리에서 행동하기 때문.

### 포천에서 인기 얻기

포천에서 제일 눈에 띄는 사업은 ‘1사 1문화재 결연 사업’이다. 포천의 문화재는 다양한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어 관리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생각해내기를 인근 기업과 문화재를 결연 맺도록 하는 것이었다. 기업에서 연결 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유적을 알리고 보존하는 일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덕분에 기업에 문화원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도 되었다고.

“우리 문화원의 문화예술단의 활동도 문화원을 알리는 데 한 몫 했어요. 문화강좌를 통해 갈고닦은 실력들을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보여주는 모임인 셈인데 복지시설, 경로당을 시설 방



3

문화여 공연 및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분들이 문화원에 직접 찾아오는 일이 많지 않아 인지도가 낮지만 이런 계기로 문화원과 친숙해지는 거죠.”

### 포천의 가족으로, 친구로

유독 포천은 가족끼리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가족시낭송경연대회 가대표적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작은 아이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거죠. 문화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정에서 우리로 인해 함께 시를 읽고 즐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로 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시낭송경연대회나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공모전은 저희가 애정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공모전은 편지쓰기를 장려하고 가족 간 이웃 간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에서 출발한 사업이거든요.”

이 원장은 문화원이 포천시민의 가족이기를 바란다. 문화를 아우르고 함께 즐기는 거지, 일방적인 가르침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합니다. 제도나 법령이 주민의 뜻을 못 쫓아가는 게 현실이죠. 더군다나 문화 욕구는 더해요. 그걸 충족해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해요. 문화강좌도 매번 같은 것만 하면 주민들이 식상해 합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변화의 속도가 빠른데요. 그들에게 더 이상 예전 것은 흥미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더욱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 실버세대의 자신감을 위해 실버악단 계획

1. 포천문화원의 반월문화제
2. 포천문화원 이만구 원장
3. 포천문화원 가족들  
좌부터 이만구 원장, 김경민 사무국장, 윤미순 과장, 신진희 향토사팀장, 허혜경 문화학교 팀장, 고아람 사무담당
4. 전국휘호대회
5. 문화인의 밤. 우리춤 공연
6. 가족시낭송경연대회
7. 1사 1문화재 결연식



4

실버문화학교 운영으로 어린이 한자교실 강사 양성반을 운영했던 포천문화원에서 이번 해에 야심차게 준비하는 것이 있다. 바로 실버악단을 구성해볼 작정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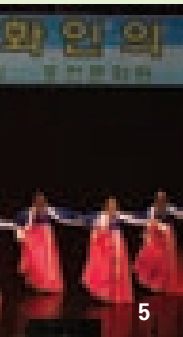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공존하는 퓨전악단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요. 현재 우리 문화원의 문화예술단도 이런 자신감의 결과거든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공연하고 박수 받던 분들이 아니에요. 꾸준히 노력하셨던 것을 점점 보여주고 인정받게 된 거죠. 노인공경이 미덕이었지만 요즘엔 노인세대가 얼마나 소외당합니까. 그분들에게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하도록 하고 싶어요.”

포천에는 관내 문화 기관이 많은데 협의하기를 문화예술 강의만 맡는 것으로 해 그 구분을 두었다. 그런 덕에 관내 문화기관이 서로 맡은 분야의 강의를 전문성을 가지게 되고 사소한 마찰이나 경쟁을 피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더 매끄러워졌다. 그래서 포천문화원은 이렇게 문화예술 부문에만 주력하는 편이라고.

### 즐거우니까 하지,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나

“권위로 사람들을 대하면 안돼요. 주민 속으로 파고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 문화학교 수강생이 350명이에요. 이 협소하고 작은 교실에서 배움과 열정으로 오시는 분들이죠. 포천의 인구가 16만 명입니다. 포천만 해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단체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는 건 우리의 몫이죠. 우리가 즐거우니까, 보는 사람도 즐거워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문화를 향유하면 더없는 기쁨이죠. 그럴 때면 바쁜 것도 있어요. 주말에 우린 특히 더 바빠요. 즐거우니까 하지,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나.”

이만구 원장은 포천이 가족 울타리에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미있는 놀이를 가르쳐주듯이, 할머니가 손자에게 옛날 옛적 때물은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그렇게 문화원과 포천시민이 호호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늘도 포천문화원은 더 바쁘다. 울타리를 치고 이곳저곳 손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내느라.



5



6



7

기획

푸른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 옛 관례 · 계례 冠禮 · 笄禮와 현대 성년례 成年禮

## 1. 옛날의 성년의식, 관례(冠禮)와 계례(笄禮)

옛날의 성년의식은 남자는 상투를 들고 관(冠)을 씌우기 때문에 관례라 하였고, 여자는 머리를 올려 쪽을 짓고 비녀를 꽂았기 때문에 계례라 하였다. 그리고 어른의 평상복, 출입복, 예복을 차례로 입히는 삼가례(三加禮)를 하고 술의 의식인 초례(醮禮)와 별명을 지어주는 관자(冠字) 등 5가지의 절차를 본받을 어른을 큰손님[賓]으로 모시고 거례하였다. 그러나 이런 절차는 어른의 걸모습을 차리는 것이고 참 의미는 ‘책 성인지례(責成人之禮)’라고 해서 어른노릇을 가르치는 데에 있었다.

중국에서는 9백년 전에도 “관례가 행해지지 않으니 어른다운 어른이 없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1895년에 머리를 짧게 깎는 단발령(斷髮令)이 내려져서 공식적으로는 관례가 없어졌으나 고집스럽게 머리를 기르는 사람들은 관례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어른노릇을 가르치는 의식이 없어지고 80년이 되니까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져서 1973년에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다가 1975년부터는 5월 6일로 변경하였고 현재는 5월의 3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정하여 행사를 치른다.

성년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돋구기 위하여 옛날의 관례와 계례를 시연하여 구경시키고 기념식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를 쓰르니까 “옛날의 관례와 계례의 연극을 구경한다고 어른노릇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모든 성년자가 의식의 당사자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이 펼쳐지면서 1980년대부터 한국전례연구원에

의하여 현대성년례가 정립되고 현재는 그것이 '건전가정의 레준칙' 에도 규정되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다.

## 2. 현대 성년례의 요점과 준비

### ① 시기

옛날의 관례와 계례는 생식기능(生殖機能)이 완비되는 15세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현대는 민법 제4조의 성년기(成年期)인 만20세를 기준으로 하여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는 개별성년례(個別成年禮)는 만20세의 생일이 합리적이고, 행정기관, 학교, 단체, 기업체 등이 주최하는 집체성년례(集體成年禮)는 그해에 성년이 되는 성년자들을 모아 성년의 날, 또는 주최자의 기념일 등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② 복장·용모

평소에 입지도 않는 옛날의 복색(四揆衫, 深衣, 阜衫, 道袍, 縑布冠, 幅巾, 黑笠, 幘頭나 唐衣, 背子, 圓衫, 첩지, 簇頭里 등)을 입히는 것은 낭비라 할 것이고, 상투나 쪽을 만들어 엮는 것은 배우의 분장(扮裝, 꾸밈)과 연극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아 어색하니까 가정행사나 명절에도 입을 수 있는 한복정장(韓服正裝)이나 양복, 양장, 학생은 학생복, 직장인은 근무복 등을 입는 것이 합리적이다.

### ③ 큰손님·집례·집사

본받을만한 어른을 큰손님으로 모셔서 의식을 주재하고 훌륭한 교훈(어른노릇)을 주시도록 한다. 예절을 잘 아는 사람이 집례(執禮, 사회)로 진행하고, 여집사(女執事) 두 사람이 돕는다.

### ④ 성년선서서·성년선언

성년선서	
성년자 성명 000	단군기원 0000년 0월 00일생
나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오늘이 있게 하신 조상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손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서하며 완전한 사회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에 참여하고 신성한 의무에 충실히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참마음으로 엄숙히 선서합니다.	
단군기원 0000년 0월 00일	성년자 000(서명)

성년선언	
성년자 성명 000	단군기원 0000년 0월 00일생
그대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자손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완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신성한 의무에 충실할 것을 맹서하고 서명했으므로 이 의식을 주관한 나는 이에 그대가 성년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단군기원 0000년 0월 00일	큰손님 000(서명)

### ⑤ 식순

1. 거례(擧禮)선언 | 모두 정위치하면 집례가 한다.
2. 큰손님 맞이 | 가족어른이 정한 위치로 모신다.
3. 성년자 입장 | 성년자가 큰손님 앞에 북향해 선다.
4. 일동경례 | 성년례를 공경하는 경례이다. 모두 자기의 앞을 향해 평경례를 한다. 모두 앉는다.
5. 성년자 배례 | 성년자가 서쪽의 손님에게 평절, 동쪽의 가족에게 큰절 곁절, 북쪽의 큰손님에게 큰절 곁절을 한다. 아직 미성년이므로 아무도 답배하지 않는다.
6. 문명(問名) | 큰손님이 “네가 오늘 성년이 되는 000냐?”고 묻고, 성년자가 “예, 그렇습니다.”고 대답한다.
7. 다짐 | 큰손님이 “너는 이제 성년이 되는 선서를 하겠느냐?”고 묻고 성년자는 “예, 선서하겠습니다.”고 다짐한다.
8. 성년선서와 서명 | 모든 참석자가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고 성년자는 선서하고, 큰손님 이하 모두는 선서를 받는다. 모두 손을 내리고 성년자는 성년선서서에 서명을 한다.
9. 성년선언 및 서명 | 큰손님이 성년선언을 하고 서명한다.
10. 술의 의식 | 두 집사의 보조로 성년자가 술을 받아 하늘과 땅에 서약하고 마시는 술의 의식을 한다.
11. 큰손님 수훈(授訓) |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큰손님이 ‘하계’의 보통말씨로 어른노릇의 교훈을 준다. 시작과 끝에 성년자가 큰손님에게 큰절 곁절을 하고 큰손님은 반절 곁절로 답배를 한다.
12. 성년자 배례 | 성년자가 큰손님에게 큰절 곁절, 가족에게 큰절 곁절, 손님에게 평절 한번을 하고, 큰손님은 반절 곁절로



답배, 부모와 연장 근친 존속은 서서 받고, 기타 가족과 손님은 평절로 한번 답배한다.

13. 집례 집사와 맞절 | 성년자와 집례 및 집사가 평절로 맞절을 한다.

14. 일동경례 | 성년례를 무사히 치렀음을 공경해 모두 자기의 앞을 향해 평경례를 한다.

15. 필례(畢禮)선언 | 집례가 필례선언을 하면 주인은 큰손님을 다른 방으로 모시고, 가족과 손님은 성년자에게 축하인사를 한다.

· 집례성년례의 차이점 | 집례성년례는 배례를 경례로 하고, 술의 의식을 생략하고, 국민의례를 하며, 내빈축사와 가족인사를 하고 이어서 주최자축의 행사를 할 수 있다.

### 3. 가장 중요한 큰손님 수훈(例示)

“큰손님 수훈 자네가 만20세 성년이 되는 생일에 성년례를 거례함으로써 어엿한 사회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게 된 것에 대하여 아낌없는 경하를 하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20세의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많은 제한을 받으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이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인 것일세. 그러나 이제 성년으로서의 거례를 하였으니 자네는 완전한 한 몫의 어른이 되었네.

어른이란 어른으로서의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른으로서의 의무가 함께 따르는 것일세. 정당한 권리를 누림과 아울러 신성한 의무에 성실해야 할 책무가 따르는 것이네.

그러므로 자네는 이 순간부터 남에게 의지하거나 보호받거나 특혜를 누리는 어린 마음을 버리고 어른의 마음과 덕을 지니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일세. 이에 자네는 어른으로서의 몸가짐과 어른으로서의 일을 해야 하네. 마땅히 장성한 아들딸의 도리를 해야하고, 성실한 가정인이 되어야 하며, 책임있는 사회인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해야하고 당당한 민주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충실해야 할 것일세.

인간으로서의 자기관리를 충실히 하고, 사회인으로서의 대인

관계를 원만히 영위하며, 인격을 도야해 양심을 지니고, 가정을 보위하되 이웃과 함께 하며, 모든 경륜을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네.

협력하고 화합하기를 공경과 사랑으로 하며, 모든 일에는 때를 맞추어 서둘거나 지체하지 말 것이며, 능력과 분수를 알아 부지런히 노력함으로써 경제생활을 하되 반드시 검소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일세. 누리지 못할 욕심을 억제해 남과 공존하는 슬기를 지닐 것이며, 예절을 실천해 남을 편안하게 하는 가운데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야 할 것일세. 실제로 있는 것보다 부풀려 거들먹거리는 자만을 부리지 말고 스스로 있는 것을 굳건히 지켜 지니는 자존함에 의연하기를 바라네.

자기의 가정과 겨레로서의 조상에 욕이 되지않고 자손들에게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도록 자네에게 맡겨진 이 시대를 보람과 긍지로 살아야 할 것이네.

이상의 모든 것이 어른이 된 이 순간에 자네의 다짐이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당부하는 바일세.

단군기원 0000년 0월 00일

큰손님 000(서명)”

위의 큰손님 수훈은 1988년 5월 16일 성년의 날에 삼성항공주식회사 창원공장 재직시원 중 그해에 성년이 되는 252명의 집례성년례에서 처음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계속하는 한국전례연구원 김득중 원장의 성년례 수훈을 개별성년례에 적합하도록 말씨를 비꾼 것이다.



김득중 한국전례연구원 원장

## 성년례의 아름다운 모습

성년례의 아름다운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성년례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1. 성년례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2. 성년례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3. 성년례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4. 성년례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5. 성년례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6. 성년례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7. 성년례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8. 성년례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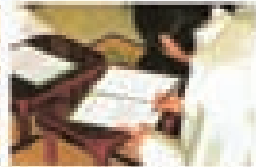
9. 성년례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10. 성년례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11. 성년례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12. 성년례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13. 성년례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14. 성년례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15. 성년례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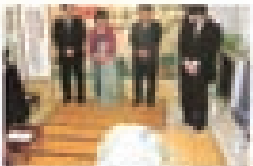
16. 성년례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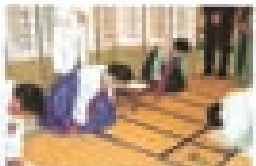
17. 성년례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18. 성년례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19. 성년례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20. 성년례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 경남도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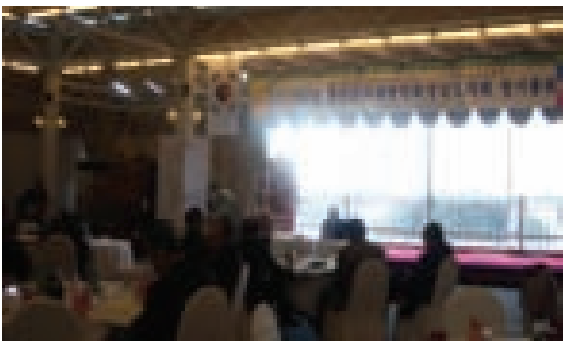
### 경남도지회 2009년 정기총회

한국문화원연합회경남도지회(지회장 조훈래) 2009년 정기총회가 3월 10일 사천문화원(원장 박동선) 주관으로 삼천포해상관광호텔에서 개최하였다.

1부 개회식에서 김태호 경남도지사를 대신하여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의 축사에는 시군문화원에서 지역문화가치창조와 향토문화 보급,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조훈래 지회장 한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으로 선임됨을 축하와 격려의 말씀이 있었다.

이어서 김수영 사천시장은 해양도시 사천을 찾아준 경남문화의 수장인 문화원장님의 방문을 환영하는 환영사가 있었다.

2부 정기총회에서 20개 시군 문화원장 참석으로 2008년 사업결산 및 2009년 예산승인의 의안심의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임기(3년)만료 임기선임에서 조훈래 지회장이 재선되었다. 재선을 맡은 조훈래(함안문화원 원장) 지회장은 “남해안 시대의 경남도내문화원의 위상과 21세기 문화의 무한경쟁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구심체로 지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는 당선소감을 피력하였다.



## 전라남도지회

### 제17차 전남문화원 임직원 연수회

제17차 전남문화원 임직원 연수회를 4월 29일(수)부터 30일까지(목)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된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남도지회의 주최로 여수시문화원 회의실과 여수 거문도, 백도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연수회는 전남문화원 사무국 직원 사무국장, 간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 횡성문화원

### 제23회 태기문화제

제23회 태기문화제가 3월 14일(토)부터 15일(일) 양일간 횡성군 우천면 정금민속관에서 열렸다. 태기문화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정금민속예술보존회가 주관한 이 행사는 횡성군, 횡성교육청, 횡성문화원, 우천면, 동횡성농협, 우천면리장협의회 등의 후원으로 열렸다. 사라져가는 전통민속문화의 계승·보존·발전으로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이 준비되었다. 전국적인 장례문화예술축제로의 발전을 꾀하고 체험형 전통민속문화축제로의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양한 체험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의 시간이 되었다.





## 횡성문화원

### 4.1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

지난 4월 1일(수) 횡성군 주최, 횡성문화원, 춘천보훈지청 등의 주관으로 4.1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를 가졌다. 읍. 면 독립운동기념물 헌화를 시작으로 헌다례행사, 넋풀이행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시낭송, 고은무용단의 기념식을 가졌다. 어사매 풍물패, 모두골 공연으로 거리퍼레이드, 태극기 퍼포먼스가 있던 후 만세운동 그림 전시회, 만세운동 인터넷 퀴즈 등 다채로운 행사로 주민의 흥미를 유도했다.

## 횡성문화원

### 관내 문화유적지 답사계획

향토문화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고장의 향토문화유적지 답사행사를 학교별로 실시 현장학습을 통한 선조들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횡성문화원에서는 4월 한 달간 관내 문화유적지 답사를 갖는다. 1차 4월 6일(월) 둔내고등학교 51명 시작으로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답사지로는 청일의 신대리 3층 석탑, 봉복사 갑천의 구방리 망향의동산, 중금리3층석탑 등 여러 곳을 탐방할 예정이다.



## 포천문화원

### 봄이 오는 소리, 꽃사진 전시회 개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과 청계산 보존협의회는 3월 25일 포천시 여성회관 2층 전시실에서 문화원 임원 및 문화계 인사, 청계산 보존협의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봄이 오는 소리”라는 주제로 ‘꽃사진 전시회 개전식’을 가졌다. 이날 개전식에서 이만구 원장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꽃이 피기 전에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꽃사진 감상을 통해 봄 소식을 미리 맞이해보자는 의미와 더불어, 청계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시된 작품은 청계산 보존협의회 한웅씨와 사진작가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이 촬영한 봄~초여름 사이의 꽃사진 50

여 점을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꽃사진 전시회는 포천시 여성회관 2층 복도 및 로비에서 4월 2일까지 전시되며, 본 전시가 끝난 후 희망하는 관내의 학교 및 기관단체에 순회 전시를 할 예정이다.



## 포천문화원

###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공모전 시상식 개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3월 20일 포천문화원 2층 강의실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공모전' 1/4분기 당선작 시상식을 문화원 임직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만구 원장은 '올해 년초부터 몰려오는 경제위

기, 사회불안 등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지역을 좀더 밝고 활기차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분위기를 일신시키고자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겨운 편지를 쓰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공모전을 더욱 활성화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영예의 장원은 포천동 양경숙님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차지했으며, 차상 최정희님, 차하 이인숙님 등 총 3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에서 협찬한 농산물상품권과 기념품이 증정되었다. 포천문화원은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공모전을 매분기별로 연중공모하고 있으며, 장원작은 '포천문화사랑' 책자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 강동문화원

### 역사 속 인물들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다 여주 문화유적답사

지난 3월 19일 강동문화원(원장 이원달)은 문화원 회원 30여 명을 데리고 여주로 문화유적답사를 다녀왔다. 명성황후의 생가와 세종대왕 영릉, 신록사가 위치해 있는 여주는 문화유적답사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6호인 명성황후 생가와 기념관은 명성황후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되새겨 보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민비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명성황후의 삶과 숭고한 정신을 다시 기려 보는 좋은 장소다.

사적 제195호인 세종대왕 영릉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심씨의 합장릉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대되고 있는 세종대왕.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발전시키고, 백성들의 안위를 항상 걱정했던 그를 다시 한번 기릴 수 있는 장소다. 또한 요즘처럼 어려운 이때, 그리고 적절한 리더십이 각광받고 있는 이때 세종대왕 영릉에 들른 것은 답사를 간 회원들에게

또다른 깊은 의미를 남겼을 것이다.

신록사는 원효대사가 창건한 곳으로 말 그대로 천년의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예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신록사에는 극락보전, 다층석탑, 조사당, 석등, 범종각 등 여러 문화재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 경건한 마음을 더해준다. 그 특유의 경건함 때문인지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을 돌이켜 볼 여유가 생기는 것 같다는 회원들이 많았다. 신록사는 천여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원효대사가 창건한 뜻을 잊지 않고 문화의 중심으로,



실천하는 불교를 보여주며 여러 주민들의 복지와 협동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문화유적답사는 역사 속으로의 몇 시간의 시간 여행이었다. 명성황후를 만났으며 그녀의 뜻을 기렸고, 신이 지나간다는 문인 홍살문에서 세종대왕의 기적을 느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도 바래지 않은 경건함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신록사에서 편안한 여유를 찾았다. 이번 문화유적답사는 회원들에게 역사 속에 살아있는 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과 생각을 조금이나마 느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했다.

## 강동문화원

### 강동문화원 계간지 '좋은동네' 봄호 발간

봄이 한창 깊어가는 3월 말, 강동문화원(원장 이원달)이 봄의 화사함을 지면으로 옮겨 담아 종합문화 계간지 '좋은동네' 봄호를 발간한다.

봄이라는 계절에 맞게 화사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진 이번 봄호는 민용태 시인의 강동과 산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명사칼럼', 한 평생 서예의 외길을 걸어온 정순모 선생의 '문화초대석', 강동구 향토사와 봄철 우리 명절의 이야기를 담은 '향토문화' 등이 담겨 있다. 그리고 지난 호부터 기획된 '학교탐방'에서는 한영외고를 찾아 학교내·외의 활동을 알아봤다. '문화행사소식'에는 주민들의 온정을 느낄 수 있었던 자선음악회 등의 소식을 담아 따뜻한 봄기운을 전한다.

이번 봄호는 문화원 회원의 작품을 위주로 꾸며졌다. 문화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강동예술과의 만남'에는 문화와 예술에 조예가 깊은 회원들의 작품이 위주로 실렸다. 문화원을 사랑하는 문화원 가족이면서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이기에 더 따뜻



하고 화사한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문화원의 생생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문화원 광장'에는 2009년 강동문화원의 여러 인사들과 회원들이 함께 모여 축하한 신년인사회 소식, 총회 소식 그리고 지난 3월 19일 여주로 회원들과 함께 다녀온 문화유적답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강동문화대학 에는 이번 4월 15일부터 개강하는 제3기 강동문화대학에 대한 소식을 담았다. 이번 제3기 문화대학은 김홍신, 신봉승, 이순재, 유안진, 신영희 등의 명사들이 함께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어떤 강의보다 수강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 2기 강동문화대학 수료생들의 수강후기를 담았다. 문화와 예술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꽃으로 피어났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봄호에는 강동문화원 후원인사를 모시는 글이 담겨있다. 지난 몇 년 쓰러져있던 문화원이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시점, 문화원은 그 기반을 더 단단히 다지고 문화·예술이 주민들의 삶에 지혜와 활력이 되며 좋은 동네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같이 참여하는 문화일기후원회를 만들었다. 문화원은 이 운동에 많은 주민들과 지역 인사들의 관심을 바라고 있다.

## 대덕문화원

### 가족인형극 '나의 열 살' 공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찾아가는 문화행사

대덕문화원(원장 송성헌)에서는 2009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향상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였다. 3월 30일(월) '노인일자리사업의 향후 전망과 사업기본방향 및 사업에 임하는 마음가짐' 등을 주제로 남상현팀장(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부지역본부)이 강의를 하였고, 3월 31(화)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임춘식교수(한남대학교), 「사업의 참여자로서의 근무자세 및 태도」로 하은숙선생(국제문화교류단 단장)이 강의를 하였다.

대덕문화원 노인일자리사업에서는 지역의 문화소외자들을 찾아 공연을 진행하는 실버극단<다솜바리> 27명,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전통문화 예술, 놀이 등을 교육하고 있는 대덕새싹문화탐험대의<실버멘토> 20명, 관내작은도서관으로 배치되어 도서대출, 도서정리 등 도서관관련보조업무를 지원

하고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에게 옛이야기 들려주기 등을 진행하는 대덕작은도서관<실버도우미>10명, 친환경적인 소재로 생활목공예를 제작하고 장승, 솟대, 농작물체험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행복주걱만들다<장승공방> 20명 등 총 77명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 마포문화원

### 공민왕사당제 봉행 및 가정의례(관혼상제)교육 수료식

3월 31일(화) 서강동 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 231호로 등록되어있는 공민왕사당 봉행교육과 전통의 모습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고 또한 가정에서 지켜나가야 할 의례에 대한 예절교육을 실시했던『공민왕 사당제 봉행교육 및 가정의례(관혼상제) 교육』수료식이 열렸다.



이날 수료식에서 이선재 마포문화원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강승규 국회의원과 신영섭 마포구청장님의 격려사, 이매숙 구의장님의 축사가 이어졌고 20명의 수강생 한사람 한사람에게 직접 수료증을 전달했으며, 이를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한 6.25 참전용사회 어르신들과 많은 내빈들의 축하속에서 수료식을 마쳤다

## 대전중구문화원

### 중구종합문화복지관 개관 및 대전중구문화원 이전개원 기념행사

중구종합문화복지관 개관 및 중구문화원 이전개원 기념행사가 지난 4월 2일(목) 대전중구문화원 (구,엘리제웨딩홀/대전고등학교정문앞)에서 있었다.

2009 중구작가초대전이 4월 2일(목)부터 4월 15일(수)까지 제1,2전시실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4월 9일(목)에는 퓨전뮤지컬 “요지경” (극단새벽) 4월 16일(목)에는 퓨전음악 “봄이 오는길” (그룹이리스) 4월 23일(목) 국악 “풍류를 그리워하다” (다현악회) 4월 30일(목)에는 전통무용 “봄날, 우리춤속으로” (박숙자무용단)가 계속된다.





## 제11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개최요강

2009년도 제11회 여성미술대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최·주관** | 대전서구문화원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미협대전지회 한국예총대전시연합회
- **전시기간** | 2009. 7. 14 ~ 7. 21 (8일)
- **전시장소** | 대전광역시청 전시실
- **작품부문** | 한국화(구상, 비구상), 양화(구상, 비구상, 수채화), 서예(한글, 한문, 문인화)

• **출품자격** | 18세 이상의 여성

### • 출품자격 제한

가. 내용

순수한 민족정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창작된 예술작품이어야 하며, 다음 작품은 출품 불가능함.

- 1)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
- 2) 미풍양속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작품
- 3) 파손이 우려되는 작품(명면: 마르지 않은 작품)

나. 규격

- 1) 한국화(구상, 비구상) 30호 (가로90.9cm 세로72.7cm) 이내
- 2) 양화(구상, 비구상, 수채화) 30호 (가로90.9cm 세로72.7cm) 이내
- 3) 서예(한글, 한문, 문인화) 2/3철지 (가로 47cm 세로135cm) 이내

※ 새워져 제작된 작품.

다. 각 부문은 유리(아크릴 포함)사용을 금지한다.

(단, 수채화의 경우 작품보호등 필요시 유리사용 가능하며 파손시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본 규격은 표구 제외 규격이며, 틀의 폭은 15cm 이내로 한다.

(단, 서예는 표구를 제외하며, 입선작 이상의 표구는 일절 제작하고 비용은 개별 부담으로 함)

라. 출품수\_ 1인당 2점 이내

### • 출품절차

가. 원서배부

- 1) 기간 : 2009. 3. 16 ~ 6. 9
  - 2) 장소 : 전국 각 문화원, 한국미협대전지회, 한국예총대전시연합회, 시내화방 및 필방
- ※ 홈페이지 [www.sgcc.or.kr](http://www.sgcc.or.kr) 에서 출품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작품접수 | 2009. 6. 8 ~ 6. 9 (2일간)

다. 작품접수처 | 대전서구문화원

(우편, 택배가능하며, 접수당일까지 도착한 작품에 한함)

라. 심사 | 2009. 6. 11

마. 출품료 | 1점당 30,000원

• **작품심사 결과 발표** | 2009. 6. 12 (대전서구문화원 사무국)

• **전시작품** | 입선이상작품

• **시상**

가. 전체대상 1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장 및 부상 500만원·매입상금

나. 부문별 최우수상 (한국화·양화·서예 각1명)

상장 및 부상 100만원·매입상금

다. 부문별 우수상(한국화·양화·수채화·서예·문인화 각1명)

상장 및 부상 50만원

라. 장려상 (3명) | 상장 및 부상 20만원

마. 특선 | 상장 (부문별 약간명)

바. 입선 | 상장 (부문별 약간명)

### • 시상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09. 7. 14(화) 오후 3시

나. 장소 | 대전광역시청 대강당

### • 작품반출

가. 낙선작품 | 2009. 6. 15 오전 10시-오후 5시(대전서구문화원)

나. 전시작품 | 2009. 7. 21 오후 3시-오후 5시(대전광역시청 2층 전시실)

※ 기간내 찾가지 않음시 분실, 파손의 책임을 지지 않음.

### • 초대작가 지정

본 여성미전에서 특선 2회 이상 입상자로 작품부문별(한국화·유화·수채화·서예·문인화)로 총점 12점(대상5점, 최우수4점, 우수상3점, 장려상, 특선 각2점, 입선1점)이상 획득자는 다음연도부터 초대작가 지 정자격을 받을 수 있음.

### • 관람료 | 무료

###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전서구문화원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동로 41 (둔산동 주민센터 3층)

전화 042)488-5474, 9596 FAX 042)488-8579

※ 위 사항중 전시일자와 시상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전서구문화원 지하철이용 찾아오시는 길 | 시청역하차 4번 출구

2009년 3월 16일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운영위원회

전람회장 대전서구문화원장

## 실버사업설명회

2009 지방문화원 실버문화학교 사업설명회가 4월 10일(금) 서울 영등포문화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2009년 실버 사업을 신청한 137개 문화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어르신들에게 문화원이 더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문화원이 노인세대의 문화예술 향유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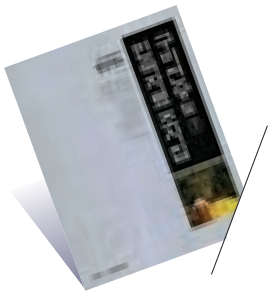
이어 2009년 한 해의 실버문화학교 개요 및 추진 계획을 알리고 행정 절차와 서류 등에 관해 안내했다. 2009 기획프로그램 '나이 없는 날 (No age day)'를 소개하고 프로그램 및 진행 방법을 소개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실무자간 친목을 다졌다.





**수원사람들의 삶과 문화**  
수원문화원

‘수원사람들의 삶과 문화’는 수원 토박이와 50년 이상 거주한 수원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채록한 것으로 수원 근대 역사와 옛 모습을 생생하게 복원한 기초 자료이다.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도시적 발달이나 외형적 틀은 갖추었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수원의 정체성이 멀어지게 됨을 애석하게 생각하여 발간한 것으로 50여명의 지문위원들의 구술내용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책에는 수원의 역사 이외에도 수원사람들의 돌, 혼례, 회갑 등의 일생의례부터 의식주와 교육에 이르기까지 자료사진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사도세자 이야기나 도깨비 이야기 등 구술로 전해오던 수원에 전해오는 옛날이야기도 함께 담고 있어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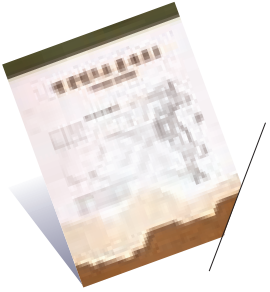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조사집 ⑦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편**  
화성시 · 화성문화원 / 김용국

화성문화원에서 2004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조사사업’의 일곱 번째 결과물인 정남면 편이 발간되었다. 지금 화성은 12곳의 택지개발과 3곳의 정책개발 사업 그리고 4곳의 도시개발사업 등 총 19곳의 개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조사의 실체와 주체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등 지역의 향토역사 자료가 훼손 및 망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혼란스런 시기 속에서 정남면에 대한 자료집을 남길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지역의 민속자료들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발간되어 선조들의 삶과 애환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소중한 구비문화가 후손들에게까지 계승, 발전되길 기원해본다.



**〈중랑향토사6집〉 중랑의 어제와 오늘**  
중랑문화원

중랑지역은 1963년에 경기도에서 서울지역으로 영입이 되고 난 이후 도농의 성격이 함께 공존하던 서울 외곽의 도시로서 서울의 다른 구보다 더디지만 농촌사회에서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루어 왔다. 이번 ‘중랑의 어제와 오늘’에는 중랑의 연혁, 토지이용의 변화, 인구, 산업, 교통, 종교 등 중랑의 기본사항을 정리, 분석하였다. 이 책에는 중랑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그래프와 도표 등을 활용하여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들이 과거와 현재를 뒤돌아보고 좀 더 나은 미래로, 환경친화적인 지역으로 다가가기 위한 나침반이 되어주길 바래 본다.



**옛 문헌으로 본 속초II 면세일반 · 읍세일람**  
속초문화원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도시의 틀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속초 지역은 ‘속초’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독립된 자료를 가진 것이 시기적으로 오래 되지 않았고, 보존상태도 열악하여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속초시에서는 향토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속초문화원 산하에 ‘향토사 연구소’를 두어 매년 향토적 자료를 발굴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이번에 발간된 본 도서에는 1926년에 기록된 〈면세일반〉과 1959년에 기록된 〈읍세일람〉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일제시대와 6·25이후 속초의 지형, 경제, 문화, 유적 등 다양한 자료를 소개하고 있어 속초의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가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해시 고문서II**  
동해문화원

동해문화원에서는 2002년 동해 지역의 고문서를 발굴하여 ‘동해시 고문서’를 1차 발간 한데 이어 두 번째로 동해시에 산재해 있는 고문서를 수집하여 발간하였다. 이번 ‘동해시 고문서 2권’에는 동해시 송정동에 거주하는 김남용님 덕에서 소장하고 있던 400여점의 고문서를 연대별·종류별로 정리하여 원문과 내용을 해석, 요약하여 수록하였다. 김남용님의 선조는 운옹 김자현으로 세종 29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 병조 정랑, 사헌부 감찰, 청야 현감, 청하 현감 등을 역임한 분으로 자료의 사료적 가치가 충분하다. 강릉김씨 항길덕의 보관 고문서 자료 외에도 수많은 자료가 산재해 있으나 우선 방대한 400여점의 자료들을 정리, 발간 한 것만으로도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고문서에 대한 연구가 있길 기대해 본다.



**천사의 섬 신안의 문화유산**  
신안군 · 신안문화원 / 최성환

신안군은 1976년 증도면 도덕도 앞바다에서 중국 송원대의 진귀한 유물들이 대량으로 발굴되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곳이다. 이는 한국 해양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겼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도서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번에 발간된 ‘천사의 섬 신안의 문화유산’에는 그 중요성을 인지하여 발간되었으며, 신안군에 소재한 문화재들을 각 읍면단위로 컬러를 달린 디자인 속에 깔끔하게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문화재는 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비지정문화재 가운데에도 그 역사적 의미가 깊은 유산을 또한 소개 되고 있으며, 실제 현장을 단시할 수 있는 접근성과 관광적 가치를 고려하여 선별하였기에 내용면에서도 활용도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창간호〉 경남향토문화**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회

경남지역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앞장서 온 한국문화원연합회 경남도지회가 도내 각 문화원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사업들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경남향토문화'를 창간·발간하게 되었다. 본 호에는 창간을 축하하는 경남도지사의 축사 등을 시작으로 경상남도의 문화행사 및 명승지를 소개한 컬러화보와 각 지회 문화원장들의 글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기획연재로는 무형문화재 및 문화원사업을 소개하고 경상남도 시 0104군 소재의 중요 무형문화재를 정리하였다. 앞으로 지속해서 발간 될 '경남향토문화'를 통하여 경상남도 소재 각 문화원의 향토사 연구 및 사료 수집 등에 있어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되고, 경남의 전통문화를 이끌어 가는 중심점이 되는 문화지로 성장하였으면 좋겠다.



**반딧불문화 제16호**  
무주문화원

무주 유일의 종합 문예지인 반딧불문화 제16호가 발간되었다. 지난 2008한해 무주문화원과 무주관내에서 펼쳐졌던 문화 예술활동을 총 결산하고 그 실적을 책에 오롯이 담아 퍼냈다. 특히 이번호에는 대표적 관광지인 무주군천동 지명과 유래와 얽혀서 박문수전에 얽힌 내용을 풀이하고 무주군 관광 사진공모전 입상작, 한국문인협회 무주지부, 한국작가회의 무주지부 회원들의 문학작품 등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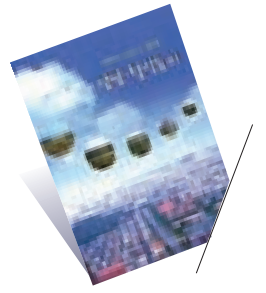
**지도군총쇄록\_섬에서 섬을 다스리다.**  
신안문화원 | 역자 김정섭 · 김형만

'지도군총쇄록'은 현 신안군의 모태가 된 지도군(1896-1914)이 창설되면서 초임군수였던 오형묵이 부임하기 전부터 떠날 때까지 2년 4개월간 쓴 기록이다. '섬에서 섬을 다스리다'라는 부제를 달고 출간된 이 책은 이러한 지도군총쇄록의 국역본으로 원문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가능한 직역하였고 한자가 표기가 필요한 곳은 국역문 옆에 병렬로 표기하여 읽기 쉽게 하였다. 또한 각주를 통해 고전 용어와 보충설명을 덧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지도군총쇄록\_섬에서 섬을 다스리다는 신안군의 당시 사회상을 연구하기에 좋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은 물론 수많은 공직자들에게도 귀감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어 지역자료가 아닌 일반도서로 읽기에 좋은 것이다.



**덕을 품은 곳 대덕구 이야기**  
대덕문화원

대덕문화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역사, 인물, 정신, 문화 등에 관하여 주민들이 바로 알고, 또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대덕바로알기> 대덕학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각 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11개 분야에 대한 강의와 2회의 현장답사를 실시하는 '대덕문화아카데미'를 개최하였고,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인문학이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2008년 8월 주간조선에 소개될 정도로 열띤 호응이 있었다. 이번이 발간된 '덕을 품은 곳 대덕구 이야기'는 대덕문화아카데미 강의록을 정리, 보완하여 제작된 것으로, 각급 학교와 주민들에게 널리 이를 보급하여 대덕을 알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대덕문화해설사들의 기본교재로 활용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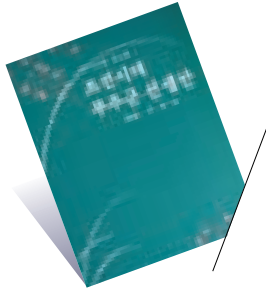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철산동지**  
광명시

지난 3년에 걸친 소하(알직), 하안, 광명(옥길), 철산 지역의 역사를 기록한 마을지 발간사업의 마무리로 '광명·철산동지'가 발간되었다. 본 도서에는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광명시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광명, 철산지역의 면모를 담고 있으며, 옛 지역의 현황과 행정변화, 오늘날의 공공시설 등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토박이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소개하여 통계수치와 공문서에 기록된 역사 속에 따스한 사람의 숨결이 느껴진다. 또한 광명의 변화를 한눈에 느끼게 해주는 사진으로 정리한 화보형식 페이지도 볼거리이다.



**마산 성신대제 복원 모형 연구**  
마산문화원

성신대제는 마산만(馬山灣)이 가진 환경적 특성에 기인하여 300여년전부터 전해오는 제의행사였다. 1954년 마산어업조합에서 성대하게 제를 올린 후 맥이 끊어졌으나 마산문화원이 주체가 되어 2006년 성신대제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욕적으로 복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학술연구발표회(6회), 성신대제 조사자료집과 '마산 성신대제 연구, 논문집을 발간한 바 있다. 금년에는 '별신대세우기'와 '선악(船樂)'의 복원 모형, 성신제당 제의 모형, 성신제의 성격을 통해 본 무속제의 복원 모형, 성신대제 놀이마당 복원 모형, 마산 성신대제 복원과 축제 이벤트 모형화, 마산 성신대제의 문화산업화 모형을 소개한 '마산 성신대제 복원 모형 연구, 논문집을 두번째로 발간하였다. 성공적인 성신대제복원사업으로 문화도시 마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화합과 번영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향토사료 제 11집 조선시대 무주군 선행안** (편자\_ 윤명채 감수\_ 김경석)  
무주문화원

무주지역에 관한 향토사료를 펴내고 있는 무주문화원이 제 11집(조선시대 무주군 선행안)을 발간하였다. 우리고장 무주를 다스렸던 수령들의 행적과 출신, 부임 기간 등을 적어 놓았다

그동안 1548년부터 1673년 까지 현감53인, 1675년부터 1895년까지 도호부사135인, 그 이후 1910년까지 군수2인등 모두 190인의 관안만 전해왔으나 그 외에 세종대부터 명종대까지 8명의 새로운 현감과 선조대부터 효종대사이 무주현감직을 제수 받았으나 어떤사유로 인하여 부임하지 못한 5인등 모두 13인의 현감을 새로 찾아냈으며 부사직으로 승차 된 이후도호부사직을 제수받고 부임하지 못한 14인의 부사, 그리고 군수로 부임하였으나 재임기간 등을 알 수 없었던 군수 7인 등 모두 34인의 수령명단을 새로 찾는 성과를 얻어 총 224인의 관안을 작성 할 수 있었다. 시대순으로 배열하고 당대 사료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원원일기), (일성록)(비변사등록), 무주문화원에서 발행한 적성지 등을 참고하였다.



**남사면지**  
울진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남사면은 울진의 서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산이 높고 골이 깊고 들도 넓은 지역이다. 이 책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남사면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고, 남사지역민의 삶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서술대상지역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행정구역상 남사면 지역 11개리에 국한하였다. 내용으로는 남사면 지역의 역사와 지형 및 지질을 비롯하여 문화유산, 성씨와 인물, 삶의 틀, 종교, 문화, 민속 등을 다양하게 담고 있으며, 현장조사하여 정리한 구비전승 되고 있는 전설 및 민담, 민요 등도 소개하고 있다.

## 파주시지 발간작업을 마치고



파주라서 가능했다.

시민을 위한 책이라는 분명한 목표, 기존의 관행을 과감하게 벗어버린 파주시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작업자들의 의욕과 헌신이 작업 착수 일년 만에 전 9권, 총 4,424쪽의 『파주시지』를 탄생시켰다. 파주시지는 지난 2008년 2월에 착수하여 2009년 2월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 했다. 꼭 1년 만이다.

처음엔 알만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보냈다. 1년이라니 도대체가 말이 안된다고.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며 파주로 거처를 옮겼다.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로 작업팀을 짰다. 시는 모든 걸 책임지고 소신껏 하라며 편찬위원회 같은 옥상옥(屋上屋)을 만들지 않았다. 파주시의 과감한 혁신행정이 시지 발간작업에도 큰 힘을 발휘했다. 논의는 간결했고 작업은 빠르게 추진되었다. 모든 결정은 매주 기획회의에서 내렸다. 각 권별로 책임자를 정했고 목차를 확정하고 필자를 선정하는 데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야말로 일사천리였다. 파주전문가, 전문연구자, 전문편집자들로 구성된 작업팀은 매일매일 즐겁게 일했고 부지런히 파주의 구석구석을 다녔다.

『파주시지』는 '현재 중심' '사람 중심' '테마 중심'의 작업원칙을 잡고 지금 파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데 특별히 노력했다. 필자도 전문연구자 외에 작가들과 열정적인 파주의 활동가들로 확장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연구작업이 미미한 현실을 감안하며 연구자들이 서로 연계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시군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르포작업도 의욕적으로 시도했다. 시군지는 지나간 과거와 동시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작업에도 충실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파주의 모습도 많이 수록하였다. 항공사진이다. 시의 배려로 세 차레나 헬기를 타고 항공촬영 작업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항공사진 자료를 제공받아 작업에 맘껏 활용할 수 있었다.

이번 시지 발간작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었던 생활사 관련 사진들이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한 사진수집작업에서 예상밖의 성과를 얻었다. 파주시에 사는 70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작업과 가가호호 방문작업을 통해 3,000컷에 달하는 소중한 사진들을 모았다. 전쟁과 수해를 겪으며 남아있는 사진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값진 성과였다.

하지만 이쉽고 부끄러운 부분도 많다. 시민들의 눈높이보다 높은 부분이 많음을 숨길 수가 없다. 특히 현장자료를 더 많이 조사하여 수록하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지역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파주 역사자료실' 같은 곳이 속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원 없이 일했던 1년이었다. 앞으로 시군지 작업은 1년 6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 작업하면 좋겠다. 1년 원고작업, 6개월 편집작업 이렇게 말이다.

모쪼록 이 파주의 사레가 지역민들의 삶과 문화를 갈무리하는 향토지 발전에 작은 디딤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기만 전 파주시지 편찬실 상임위원



## 경남도지회 조훈래 지회장 재선

한국문화원연합회경남도지회(지회장 조훈래) 2009년 정기총회가 3월 10일 사천문화원(원장 박동선) 주관으로 삼천포해상관광호텔에서 개최되었다.

1부에 이어 2부 정기총회에서 임기(3년)만료 임기선임에서 조훈래 지회장이 재선되었다. 재선을 맡은 조훈래(함안문화원 원장) 지회장은 '남해안 시대의 경남도내문화원의 위상과 21세기 문화의 무한경쟁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구심체로 지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는 당선소감을 피력하였다.



## 부산연제문화원장에 김영웅 씨

지난 3월 31일연제예식장에서 김영웅(66) 신임원장님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 날 김 원장은 전임 최민일 원장님을 같은 지역 출신으로 30년 동안 모셔 오면서 자신에는 엄격하시지만 남들에게 한없이 관대하신, 스승으로 모시고 배워야 할 분이라고 회고하면서 전임 원장님의 업적을 계승하여 22만 연제구민들에게 향기롭고 격조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다짐하였다. 김원장은 민주평화통일 지문화의 연제구협의회 회장, 박정희대통령을 사랑하는 박정모 회장, 연산장학회 회장, (주)세프라인 회장, 포동 특수강 회장 등을 맡고 있다.



## 전북 임실문화원에 최성미 씨

임실문화원은 20일 정기총회에서 제16대 문화원장에 최성미(59)씨를 선출했다. 최 원장은 회원 191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117표를 얻어 원장으로 당선됐다. 최 원장은 '임실문화원을 전국에서 앞서가는 진취적인 문화원으로 발전시키고, 소중한 임실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생활 속에 같이하는 문화공간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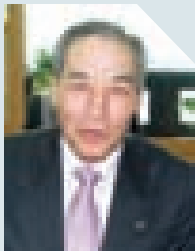
## 서초문화원 임한중 씨

서초문화원은 지난 2008년 12월 15일 창립총회에서 임한중 원장을 초대원장으로 추대했다. 임 원장은 서초구에서 문화원이 설립되지 않은 것은 아쉬웠던 점이라 밝히면서 앞으로 서초문화원이 개인이 아니라 온 가족이 참여하며 어른과 청소년이 소통하는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원장은 서울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자문위원으로 있으며 윤봉길 기념사업회 상임이사로 있다. 서초문화원은 지난 3월 17일 개원했다.



## 성북문화원 조태권 씨

성북문화원은 정기총회에서 조태권 원장(62)을 선임하고 지난 3월 26일 취임식을 가졌다. 성북문화원 1층 소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 원장은 '어려운 시기에는 무엇보다 문화와 예술이 국민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면서 힘을 북돋워주는 윤활유라고 생각' 한다고 밝히면서 '성북문화원의 지역 문화활동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조태권 원장은 성북문화원의 부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 (주)화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 보은문화원 김건식 씨 재선

보은문화원은 2월 25일 보은읍 이평리 문화예술회관 시청각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건식(69) 원장을 제15대 원장으로 재선출했다. 김 원장은 이날 회원 143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105표를 얻었다. 김 원장은 '부원장 기능과 이사회를 활성화하고 문화교실이나 동아리 활동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음성문화원 최병운 씨

신임 최병운(49) 음성문화원장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치고 향토문화 등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기존의 문화 강좌를 확대해 각 읍·면 단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임 원장들이 쌓아 놓은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들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문화원을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회장은 음성을 출신으로 음성청년회의소회장, 음성음체육회장, 청주법원 총주지원 음성군법원조정위원, 충북아스콘 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음성 문화원 향토문화예술단 창단회장, 음성문화원이사 등을 지냈다. 현재 (주)석진레미콘·(주)석진산업·(주)석진종합건설을 운영하고 있다.

# 전국 학생자치대회

제24회 전국양토문화공모전  
4.1 ▶ 9.30

국내 유일의 24년 전통의  
양토사 학생연구 공모전

2009

제24회 전국양토문화공모전 경모 소망

주최 : 한국문화재단  
주관 : 양토사 학생연구 공모전  
www.yangto.com

● 공모 범위  
초, 중, 고등학교 1학년 ~ 3학년 학생

● 공모 기간 및 수락 마감 일자

○ 접수 : 2009. 4. 1 ~ 2009. 5. 31(수요일) 오후 5시

○ 심사 : 2009. 6. 1 ~ 2009. 6. 30(수요일) 오후 5시

● 대상

○ 1등 : 1명 (총 100만원)

○ 2등 : 2명 (총 50만원)

○ 3등 : 3명 (총 30만원)

○ 기타 : 10명 (총 100만원)

● 연구 분야 및 주제

○ 분야 : 사회, 문화, 예술, 역사, 환경, 과학, 체육

○ 주제 : 양토사 학생연구 공모전 주제

○ 연구 방법 : 자유

○ 연구 결과 : 보고서, 발표자료, 영상자료 등

○ 연구 주제 : 2009. 4. 1 ~ 2009. 5. 31(수요일) 오후 5시

○ 연구 결과 : 보고서, 발표자료

○ 연구 주제 : 2009. 4. 1 ~ 2009. 5. 31(수요일) 오후 5시

○ 연구 결과 : 보고서, 발표자료

○ 연구 주제 : 2009. 4. 1 ~ 2009. 5. 31(수요일) 오후 5시

○ 연구 결과 : 보고서, 발표자료

○ 연구 주제 : 2009. 4. 1 ~ 2009. 5. 31(수요일) 오후 5시

● 시상 내역

구분	대상	시상금
1등	1명	100만원
2등	2명	50만원
3등	3명	30만원
기타	10명	100만원

● 연구 방법

○ 자유

○ 보고서, 발표자료, 영상자료 등

○ 연구 주제 : 2009. 4. 1 ~ 2009. 5. 31(수요일) 오후 5시

○ 연구 결과 : 보고서, 발표자료

○ 연구 주제 : 2009. 4. 1 ~ 2009. 5. 31(수요일) 오후 5시

○ 연구 결과 : 보고서, 발표자료

○ 연구 주제 : 2009. 4. 1 ~ 2009. 5. 31(수요일) 오후 5시

○ 연구 결과 : 보고서, 발표자료

● 문의

○ 양토사

○ 02-709-2000

○ www.yangto.com

○ 2009. 4. 1 ~ 2009. 5. 31(수요일) 오후 5시

○ 연구 결과 : 보고서, 발표자료

○ 연구 주제 : 2009. 4. 1 ~ 2009. 5. 31(수요일) 오후 5시

○ 연구 결과 : 보고서, 발표자료

○ 연구 주제 : 2009. 4. 1 ~ 2009. 5. 31(수요일) 오후 5시